정책연구
2018-31

DSI

# 대전시 공유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정책연구 2018-31

# 대전시 공유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박 노 동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 | |
|---|---|
| **연구책임** | • 박노동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 **연구지원** | • 강영희 / 풀뿌리사람들 이사 |
| **연구지원** | • 박으뜸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조교 |



**정책연구 2018-31**

대전시 공유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인 박 재 묵

발행일 2018년 10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00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영창당인쇄사 TEL 042-626-7888 FAX 042-626-988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 연구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상호신뢰성과 상호호혜성에 기반 한 ‘공유’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와 나눔의 시민공동체를 조성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공유 네트워크는 해체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낙후된 지역 재생, 지역 사회 내 신뢰와 상호호혜성에 기반을 둔 연결망 형성 등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대전시도 공유 활성화를 통하여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문화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15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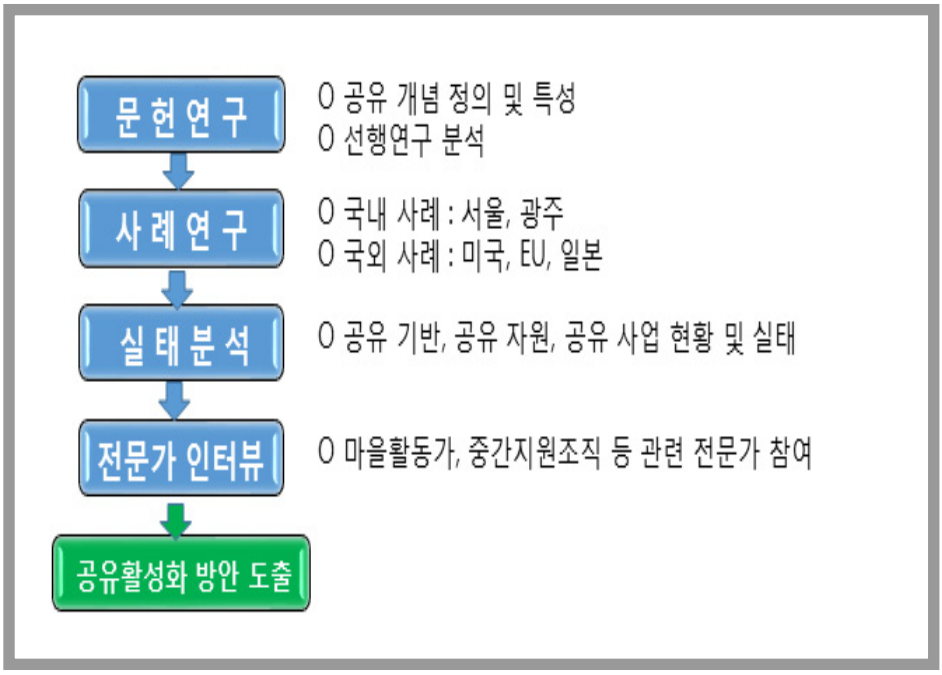
○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시에는 공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로, 공유 관련 기본 계획이 미비한 실정이며, 공유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공유 기능 자원 검토나 운영실태 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공유도시 대전’의 보다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지역 사회 내 공유자원에 대한 정의와 유형화를 통한 공유자원 분석, 기존 공유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검토와 대전의 상황에 맞는 ‘대전형 공유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므로 본 연구는 ① 대전시가 갖고 있는 '공유자원'을 살펴보고, 이를 검토하는 한편, ② 대전시 공유네트워크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③ 향후 대전시 공유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정립하고, 공유 활성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데 목적을 둠

##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크게 ① 공유 관련 개념 및 특성 정의, 공유경제 관련 선행연구 정리를 위한 문헌분석, ② 시사점 도출을 위한 공유네트워크 및 공유 사업 성공사례 연구, ③ 대전시 공유 자원, 공유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④ 대전형 공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FGI)를 통해 진행되었음




**[그림] 연구 체계도**

## ■ 연구 결과

### □ 개념과 기존 논의 검토

○ 본 연구는 연구방향 정립을 위해 공유, 공유 도시, 공유네트워크, 공유자원 개념을 정의하고, 공유 개념이 갖는 성격과 특징을 자발성, 상호신뢰성, 상호호혜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공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사회 내 상호신뢰성이나 상호호혜성적 관계망 형성 및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며, 공유 지원 사업 초기에는 경제적 모델 발굴 이전에 지역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다양한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면, 이들이 지속되고 자생할 수 있는 경제적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 도출

○ 공유도시 구축, 공유 자원, 공유의 효과성 등 본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전시 공유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공유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공유의 긍정적인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방향 설정의 시사점 제시

### □ 국내·외 사례연구의 시사점

○ 대전시 공유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대전시에 필요한 공유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서울시는 가장 선도적 위치에 있는 공유도시로 공유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있었으며,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인식 조사와 행사 등을 실시.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앱을

개발하여, 공유 광주의 다양한 사업과 공유 공간, 공유 물품들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함

○ 국외 사례는 일본과 유럽연합, 미국의 사례를 조사. 일본은 다양한 행정서비스 유형별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공유 경제협회를 중심으로 우수 공유 기업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유럽연합은 도시를 구성하는 전체로서 공유를 이해하고, 공유도시 구축을 위한 전반적 도시 디자인을 설계함. 미국은 공유 사업 시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공유 활성화 관련 법적·제도적 현황 분석**

○ 대전시는 공유활성화 지원조례를 2015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유 관련 다양한 개념을 정의하고, 공유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지원조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공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지속가능한 공유 사업 시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대전시 공유기반 및 공유자원 분석**

○ 대전시 공유기반자원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작은 도서관, 공유 온라인 플랫폼, 지식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살펴봄

- 대전시의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수준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낮은 편에 속함
- 그러나 대전시는 사회적자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의 수 또한 인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주민들의 작은 도서관 방문빈도는 낮은 편에 속함
- 공유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서울시나 광주시에 비해 제대로 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

- 지식 아카이브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시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물들을 이용하고,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대전시 공유자원은 물적 공유자원, 인적 공유자원, 공유 공간,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살펴봄
- 물적 공유자원에 있어 대전시는 피플카, 타슈 등과 같은 성공적인 모델이 존재했으나 생활 속 다양한 물적 공유자원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물적 공유 자원 DB화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
- 인더북, 사람책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비교적 잘 구축하고 있음
- 공간 공유자원의 경우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DB화가 완료된 공유 자원으로 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공간 공유자원을 확인할 수 있음
- 대전시에는 현재 두루, 꿀, 벗과 같은 다양한 지역화폐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순환 경제체계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공유 활성화 정책지원 요구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보다 현실성 있는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종사자들, 중간지원조직 담당자와 FGI를 실시하였음. 인터뷰의 주요 질문 내용은 ① 공유에 대한 이해 ② 공유네트워크 현황과 사업추진의 애로점, ③ 지원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 ④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구성되었음

○ 또한 녹음된 내용 전체를 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음. 이렇게 작성된 녹취록을 연구자가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적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주제들을 주요 개념으로 정리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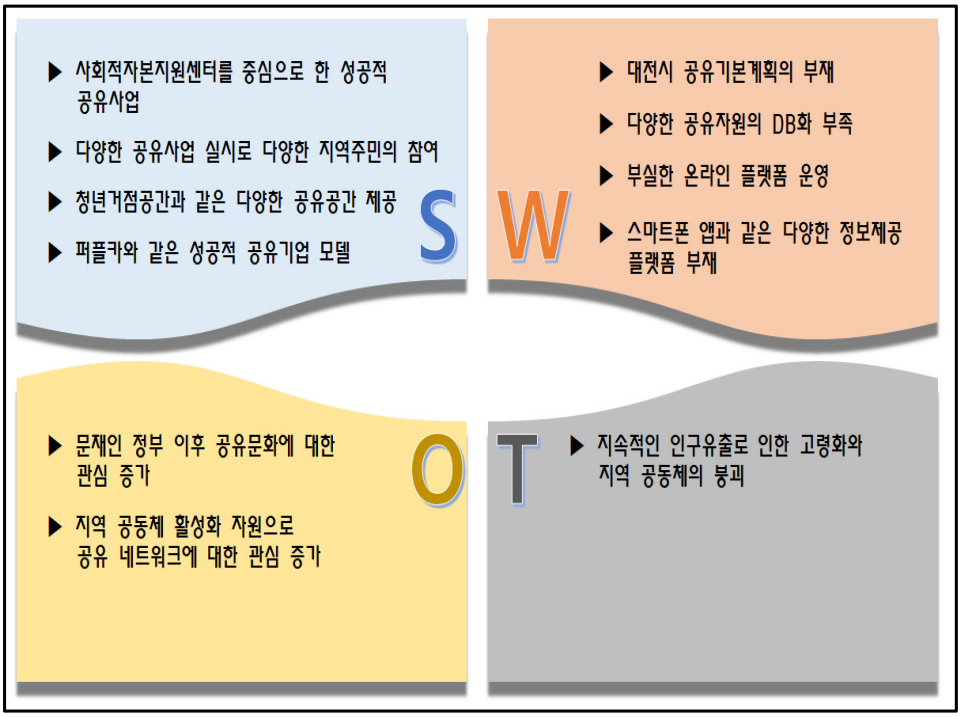
○ 전문가 인터뷰 결과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공유문화의 확산에 대한 요구, 공유네트워크 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대전시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지원사업으로 지적됨
-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하여 세대별 홍보전략 수립이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주를 이룸
- 공유 차원에서 공간 공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들 중 적극적으로 개방하거나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유휴공간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기간의 화장실·프린트나 팩스, 주민센터의 세미나실, 시청의 라운지, 주차장, 학교 운동장, 공연장(회의실), 관용버스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음
-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공유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특히,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을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음. 대전시와 사업 운영 단체와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정기적인 세미나나 토론회 개최, 공유경제 플랫폼을 조성, 각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조성, 공유경제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안
- 공유경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특히, 대전광역시가 **“공유경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 정책 제언을 위한 SWOT 분석

○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에 있어 대전 공유 기반 및 여건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음. 향후 지속 가능한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는, SWOT 분석을 통해 나타난 대전시가 갖고 있는 약점 요인을 해결하고, 강점요인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그림] 공유도시 대전 SWOT분석

□ **대전시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및 활성화 방안**

○ 본 연구에서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8가지의 정책을 제언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

**① 대전시 공유 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② 연도별 대전시 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③ 공유대전 홈페이지 개편**

**④ 공유 활성화 및 효율적 정보 제공을 위한 '공유 대전'앱 개발**

**⑤ 우수 공유 기업 인증제 도입**

**⑥ 공유 사업의 부정적 효과 최소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

**⑦ 지방 기록물에 대한 공유 환경 조성을 위한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⑧ 지역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화폐 육성시스템 마련**

# 차 례


1장 서론 ····· 3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공유 시대의 도래와 ‘공유 네트워크’ ····· 3
2. 연구 목적 ····· 5
2절 연구 방법과 구성 ····· 7
1. 연구 방법 ····· 7
2. 연구 구성 ····· 8

2장 공유에 관한 논의 검토 ····· 13

1절 연구방향 정립을 위한 개념 검토 ····· 13
1. 용어 정의 ····· 13
2. 공유개념이 갖는 특징과 의의 ····· 15
2절 기존 논의 검토 ····· 20
1. 공유도시 구축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 20
2. 공유자원 관련 선행연구 분석 ····· 23
3. 공유의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 25

3장 국내·외 사례분석 ····· 29

1절 국내 사례분석 ····· 29
1. 공유 서울의 사례 ····· 29
2. 공유문화도시 광주 사례 ····· 39
3. 국내 사례의 시사점 ····· 43

2절 국외 사례분석 ····· 45
1. 일본의 공유정책 ····· 45
2. 유럽연합(EU)의 공유도시 ····· 48
3. 미국의 공유정책 ····· 50
4. 국외 사례의 시사점 ····· 51

**4장 대전시 공유실태 분석 ····· 57**

1절 법적·제도적 현황 ····· 57
1.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 ····· 57
2.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 58
3. 대전시 공유 법률과 서울시 공유 법률 비교 ····· 59
2절 대전시 공유자원 ····· 61
1. 공규 기반 자원 현황 ····· 61
2. 공유 자원 현황 ····· 72
3. 마을기업 법적 지위별 현황 및 사업 유형별 현황 ····· 84
4. 마을기업 매출 및 일자리 현황 ····· 86
3절 대전시 공유사업 ····· 81
1. 대전시 공유사업의 일반현황 ····· 81
2. 2017년도 대전시 공유사업 ····· 82
4절 공유도시 대전 SWOT 분석 ····· 92
1. 공유도시 대전의 강점 ····· 92
2. 공유도시 대전의 약점 ····· 93
3. 공유도시 대전의 기회요인 ····· 94
4. 공유도시 대전의 위협요인 ····· 94

5장 공유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요구 분석 ····· 99

1절 조사 및 분석방법 ····· 99
1. 조사방법 ····· 99
2. 분석방법 ····· 100
2절 인터뷰 분석결과 ····· 101
1. 공유에 대한 인식 ····· 101
2. 공유 사업에 대한 평가 ····· 104
3. 공유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 108
3절 조사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 116
1. 조사결과의 종합 ····· 116
2. 조사결과의 시사점 ····· 118

6장 결론 ····· 121

1절 연구결과 요약 ····· 121
2절 정책제언 ····· 124
1. 대전시 공유 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124
2. 연도별 대전시 공유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26
3. 공유대전 홈페이지 개편 ····· 128
4. 공유 활성화 및 효율적 정보 제공을 위한 공유대전 앱 개발 ···· 129
5. 우수 공유 기업 인증제 도입 ····· 130
6. 공유 사업의 부정적 효과 최소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 ····· 131
7. 지방 기록물에 대한 공유 환경 조성을 위한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 131
8. 지역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화폐 육성시스템 마련 ···· 132

참고문헌 ····· 135

# 표 차례

[표 2-1] 공유도시 여건수준 및 필요수준 분석을 위한 지표 ····· 22
[표 3-1]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공유도시 서울 세부사업 ····· 34
[표 3-2] 2017년 서울시 공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유정책 ··· 36
[표 3-3] 2017년 서울시 신규공유사업 발굴 등 공유문화 확산 지원 ··· 37
[표 3-4] 2017년 서울시 공유도시 네트워크 강화 사업 ····· 38
[표 3-5] 일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서비스 예시 ····· 45
[표 3-6] EU 공유도시 실현을 위한 주요활동 ····· 49
[표 4-1]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속 공유 개념 정의 ····· 57
[표 4-2]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주요 내용 ····· 58
[표 4-3]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주요 내용 ····· 59
[표 4-4] 대전시와 서울시 공유활성화 조례 비교 ····· 60
[표 4-5] 전국 17개 시도 사회적 기업 수 ····· 61
[표 4-6] 대전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 ····· 62
[표 4-7] 대전시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별 현황 ····· 62
[표 4-8] 대전시 자치구별 사회적 기업 현황 ····· 63
[표 4-9] 전국 시도별 마을기업 수 ····· 63
[표 4-10] 자치구별 마을기업 운영 및 미운영현황 ····· 64
[표 4-11] 자치구별 운영마을기업의 사업유형 ····· 64
[표 4-12] 대전시 마을기업 일자리 현황 ····· 65
[표 4-13] 연도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마을 공동체수 ···· 67
[표 4-14] 전국 8대 특광역시의 작은도서관 현황 ····· 68
[표 4-15] 자치구별 작은도서관 현황 ····· 68
[표 4-16] 자치구별 작은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 ····· 69
[표 4-17] 자치구별 피플존 설치 개수 ····· 74
[표 4-18] 자치구별 타슈 스테이션 설치 개수 ····· 75
[표 4-19] 대전광역시 인적 공유자원: 사람책 ····· 76
[표 4-20] 자치구별 공간 공유자원 현황 ····· 77

[표 4-21] 공간 공유자원의 유형별 현황 ····· 78
[표 4-22] 이용료의 유/무료별 공간 공유자원 현황 ····· 79
[표 4-23]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공유네트워크 사업 현황 ····· 81
[표 4-24] 2017년 대전시 지역화폐 시범 조성 사업 ····· 84
[표 4-25] 2017년 마을살롱 '人 the 마을' 사업 개요 ····· 86
[표 4-26] 2017년 대전시 청년 거점공간 지원 사업 ····· 88
[표 4-27] 2017년 대전시 공유공간 네트워크 조성사업 ····· 90
[표 4-28] 2017년 대전시 청년 거점공간 지원 사업 ····· 91
[표 5-1] 참여자 현황 ····· 99
[표 5-2] 집단 인터뷰 질문 내용 ····· 100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체계도 ····· 9
[그림 3-1] '공유 서울' 추진배경 ····· 29
[그림 3-2] '공유허브' 공유지도 서비스 ····· 31
[그림 3-3]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개요 ····· 32
[그림 3-4] 2018 공유서울페스티벌을 통한 공유문화 확산 ····· 33
[그림 3-5] 2017년도 공유서울 추진계획 ····· 35
[그림 3-6] 공유문화도시 광주 개념도 ····· 39
[그림 3-7] '공유광주' 앱을 통한 공유자원 소개 ····· 40
[그림 3-8] '공유광주' 앱을 통한 공유단체 및 공유활동 소개 ····· 41
[그림 3-9] '공유광주' 앱을 통한 공유자원 주고받기 ····· 42
[그림 3-10] 일본의 공유경제 인증마크와 공유도시 인증마크 ····· 46
[그림 3-11] 일본 공유도시 교육프로그램: '공유도시 입문과정' ····· 47
[그림 3-12] EU 공유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 ····· 48
[그림 3-13] EU 공유도시 실현을 위한 주요활동 ····· 49
[그림 4-1] 편리한 피플카 이용을 위한 시각화된 정보 제공 ····· 73

[그림 4-2] 개선된 대전 커뮤니티 매핑 홈페이지 ····· 89
[그림 4-3] 공유도시 대전 SWOT 분석 ····· 95
[그림 6-1] 대전시 연도별 공유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26
[그림 6-2] 대전시 공유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도(안) ····· 127
[그림 6-3] 공유대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다양한 공유 정보 제공 ·· 128
[그림 6-4] 공유활성화 및 효율적 정보제공을 위한 공유대전 앱 개발 ·· 129
[그림 6-5] 우수 공유기업 인증제를 통한 공유기업 육성 및 관리 ···· 130

DSI

#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 1장

# 1장 서론

##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공유 시대의 도래와 '공유 네트워크'

개인이 물건을 '소유'하는 시대를 지나, 물건을 '공유'하는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공유'는 미래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 우버(Uber)[1], 에어비엔(Airbnb)[2] 등과 같은 성공적인 공유경제 모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국적 회계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waterhouse Coopers: PWC)는 2015년 4월 『The sharing economy』에서 5개 주요 공유경제 분야(P2P 펀딩 및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채용, 차량 및 교통수단 공유, 음악과 동영상 스트리밍, 숙박 공유)의 잠재가치가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350억 달러(약 402조 원)로 약 20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공유'가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오늘날에는 '공유'에 내재되어 있는 '상호신뢰성', '상호호혜성' 등의 속성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상호신뢰성과 상호호혜성에 기반 한 '공유'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하고 신뢰와 나눔의 시민공동체를 조성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공유시대'의 도래 속에서 '공유 경제', '공유 네트워크' 등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유 네트워크는 해체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낙후된 지역 재생, 지역 사회 내 신뢰와 상호호혜성에 기반을 둔 연결망 형성 등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

1) 우버(Uber)는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로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차량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고, 회사는 중개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일종의 콜택시를 의미한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2014년 6월에는 약 18조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에어비엔비(Airbnb)는 가장 대표적인 숙박 공유 서비스 제공 회사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공급자가 스마트폰 어플에 자신의 주거 공간 일부를 올리면, 수요자가 이를 이용하는 구조이다. 에어비엔비는 기존의 숙박업체보다 더 저렴한 비용을 통해 숙박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공유'에 대한 관심의 증가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단순 공유 촉진 조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공유도시 서울'을 내세워 나눔카, 협력소비, 공간나눔 등과 같은 다양한 '공유서울'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 이외 경기도, 부산, 충청남도 등 여러 시도에서 공유도시 실현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대전시도 "공유활성화를 통한 자원 활용의 극대화 및 공동체문화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대전시 공유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최길수, 2015)』와 『공유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정경석, 2016)』 등 대전형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례 제정 및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시의 공유 관련 기본 계획이나 정책 등은 미비한 실정이며, 공유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공유 기능 자원 검토나 운영실태 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공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래 사회의 경제 발전과 지역 공동체 발전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 서울시나 경기도 등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지역 사회 '공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전시 또한 공유도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공유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공유도시' 대전을 위한 전략화 사업 도출 등을 위한 '공유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와야 할 단계에 와 있다.

향후 대전시의 성공적인 '공유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의 '공유자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에 맞는 지역 사회 내 유·무형의 공유자원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 지역 사회 내 공유자원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전시에서 진행되어 온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향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보다 성공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하다. 즉, 오늘날 '공유시대의 도래'라는 흐름 속에서 '공유도시 대전'의 보다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공유자원에 대한 정의와 유형화를 통한 공유자원 분석, 기존 공유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검토와 대전의 상황에 맞는 '대전형 공유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공유시대의 도래' 속에서 대전시의 성공적인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대전시가 갖고 있는 '공유자원'을 살펴보고, 이를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공유자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서 대전시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공유자원을 검토한다. 이러한 유·무형의 공유자원의 검토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공유 역량을 파악함으로서, 향후 보다 성공적인 공유활성화 기본계획의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단순 지역사회 내 공유자원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대전시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대전시 공유네트워크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2015년 공유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이후 대전시는 다양한 공유사업의 실시를 통해, 여러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그간 진행되어온 공유네트워크 사업을 진단하여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향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전시 공유네트워크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한다.

셋째, 대전시와 타시도의 공유정책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대전시 공유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정립한다. 오늘날 '공유'가 미래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서울, 부산, 대구, 경기도 등 다양한 시·도에서 '공유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도 2015년 공유활성화 조례 이후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공유 네트워크 지원 및 확충을 위한 기본조례가 부재하고, 공유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보다 효율적인 대전시 공유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정립을 위해 타시도의 성공적인 공유정책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대전시 공유자원, 공유사업, 공유정책 등과 같은 공유실태에 대한 단순한 분석에 끝나는 것이 아닌, 대전시 공유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공유도시 대전'을 위한 공유활성화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2절 연구 방법과 구성

##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공유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고찰, 자료분석,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첫째, 개념정의, 적용사례, 지원체계에 대한 기존 논의, 공유네트워크를 둘러싼 재정 등과 같은 기존의 다양한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공유경제 및 공유네트워크에 대한 최근 문헌 검토를 통해 대전형 공유활성화 모델의 구축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둘째, 공공데이터 포탈, 대전시 공유네트워크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통계청 데이터 DB를 활용하여 공유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대전시 공유사업, 공유자원 등의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그동안 대전시 공유 네트워크 사업을 주관하던 기관으로 대전시 공유사업, 공유자원 등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축적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백서(연간)』, 『공유네트워크 성과집』과 공유관련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셋째, 대전시 공유활성화 전략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업 참여동기, 사업만족여부, 사업개선방향 등에 대한 비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FGI는 문헌 및 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공유네트워크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정보 획득과 함께, 당사자 입장에서 경험하는 대전시 공유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이 같은 대전시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정보 획득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향후 보다 성공적인 '공유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할 수 있었다.

문헌고찰, 자료분석, FGI이외에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심층면접과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대전시 공유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진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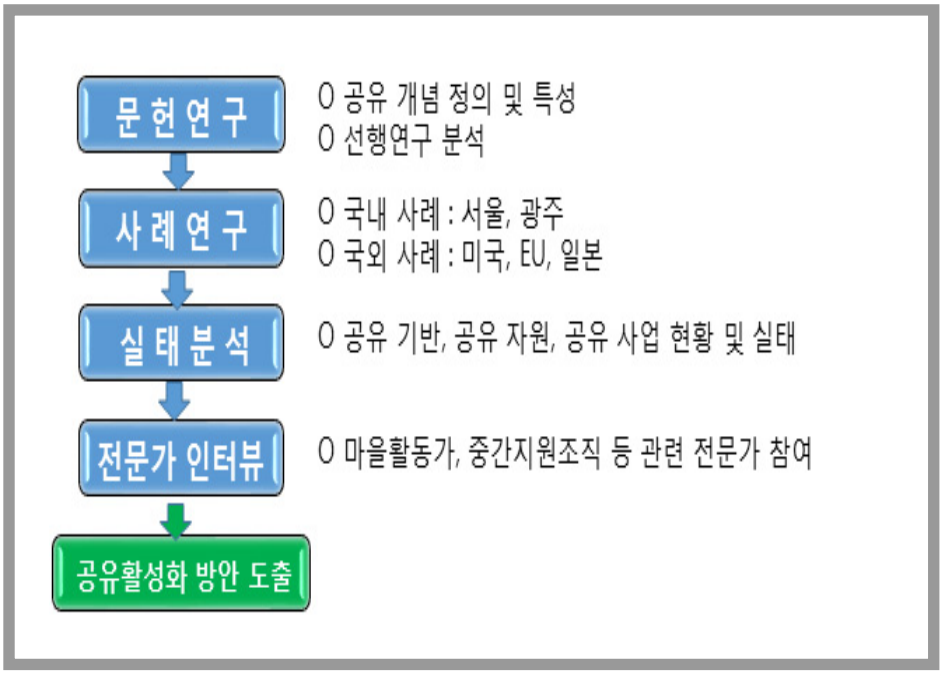
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사업 참여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을 통해 FGI에서 놓칠 수 있는 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대전시 공유활성화 사업 담당자, 지역전문가, 연구원내 관련 전공자가 참여하여, 공유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종합하고, 보다 새로운 공유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연구 구성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연구의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을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공유' 개념에 대한 정의와 선행연구 분석을 논의하였다. 공유를 둘러싼 다양한 개념들 중 본 연구와 크게 관련 있는 '공유', '공유도시', '공유네트워크', '공유자원' 개념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또한 공유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중 '공유네트워크', '공유도시', '대전시 공유활성화'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가 '공유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인 만큼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공유경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제외 하였으며, 논의하지 않았다.

3, 4, 5장은 본문을 구성하고 있다. 3장은 국내외 다양한 도시들의 성공적인 공유활성화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성공적인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대전시 공유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4장은 대전시 공유실태를 '법적·제도적 여건', '대전시 공유자원', '대전시 공유사업'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전시 공유실태 분석을 통해 오늘날 대전시 공유실태를 진단하여, 향후 공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하였다. 5장은 FGI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공유도시 대전'을 위한 공유 활성화 방안 및 정책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향후 '대전형 공유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목적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
사례연구
실태분석
전문가 인터뷰
공유활성화 방안 도출
○ 공유 개념 정의 및 특성
○ 선행연구 분석
○ 국내 사례 : 서울, 광주
○ 국외 사례 : 미국, EU, 일본
○ 공유 기반, 공유 자원, 공유 사업 현황 및 실태
○ 마을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등 관련 전문가 참여

**[그림 1-1] 연구 체계도**

DSI

# 공유에 관한 논의 검토

1절 연구방향 정립을 위한 개념 검토

2절 기존 논의 검토

# 2장

# 2장 ‘공유’에 관한 논의 검토

## 1절 연구방향 정립을 위한 개념 검토

### 1. 용어정의

#### 1) 공유

‘공유(共有)’의 사전적 의미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을 의미한다.[3] 이러한 단순 ‘물건에 대한 공동 소유’로서 공유 개념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유지(共有地)가 있으며, 오늘날 공유시대에 있어 가장 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공유의 개념은 단순 물건의 공동 소유를 넘어선 개념으로 사용된다.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에서는 ‘공유’를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유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의 공유 개념과 비교했을 때 단순 유형의 자산뿐만이 아니라 정보, 재능, 경험 등과 같은 무형의 자산 모두를 포괄하며, 단순히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특정한 목적성을 갖는 개념이다. 즉, 오늘날 공유개념은 단순한 공동의 소유를 넘어, 유·무형의 자원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나누어 사용함으로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해 나아가는 하나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공유’개념을 단순 공동의 소유 개념이 아닌 “지역사회 내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과 같이 함께 나누어 사용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자원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

3)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공유”

### 2) 공유도시

‘공유도시(Sharing City)’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한국에서는 2012년 9월 20일 박원순 시장이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공유도시’ 개념이 사용됐다.[4] 서울시에서 사용한 ‘공유도시’ 개념은 “물건, 공간, 시간, 재능, 정보 등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① 쓰지 않고 놀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② 이웃과 공동체 의식도 형성하며, ③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고, ④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공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를 의미한다.[5] 이러한 서울시의 개념과 유사하게 광주시도 공유도시를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협업을 통해 공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6]

서울시와 광주시에서 정의한 ‘공유도시’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공유도시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공유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공적인 공유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유 활동’이 이뤄지기 위한 공유네트워크와 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도 향후 공유활성화 및 ‘공유도시 대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전시의 공유 실태를 분석하고, 대전시 공유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발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

### 3) 공유네트워크

일반적으로 공유네트워크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소통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물건·토지·정보 등과 같은 유형자본과 지식·재능의 무형자본을 서로 공유하는 협력 공동체로서의 사회관계망”으로 정의할 수 있다(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센터, 2015). 즉, ‘공유 네트워크’는 ‘공유’를 매개로 이뤄지는 다양한 시민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망이다.

---

4) 2012년 9월 20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재정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품앗이·두레 등 오래된 우리의 공유문화를 도시 차원에서 되살리면, 자원 활용 극대화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실종된 공동체 문화도 회복하고 산적한 도시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인택. 2012.9.21. “서울시도 ‘공유도시’ 선언”. 한겨레신문에서 재인용)

5) 서울특별시(2013).『공유도시 서울기반조성(2013)』.

6)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

그러므로 공유네트워크는 오늘날 도시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다양한 공유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4) 공유자원

오늘날 '공유활동'에 있어 공유자원이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유자원은 공간이나 물건 등과 같은 물적인 자원에서부터 아이디어, 저작권 등과 같은 지적 자원과 재능, 경험 등과 같은 인적자원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결국, 오늘날 대전시의 공유자원이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나누어 쓸 수 있는 사용가능한 모든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공유자원을 광의적으로 정의할 경우 구체적인 공유자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유자원들 중 크게 지역 마을 공동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2. 공유개념이 갖는 특징과 의의

### 1) 공유의 성격과 특징

#### (1) 자발성

공유활동은 구성원 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뤄진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원 및 지역 사회 내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대전시 공유활성화를 위한 공유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유활동은 단순히 시차원에서 제도를 개발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공유 활동은 철저하게 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에 가반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2) 상호신뢰성**

공유활동은 참여자들 간의 상호신뢰성에 기반을 두어 이뤄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공유 속 참여자들 간 네트워크는 높은 수준에 상호신뢰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가치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리고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을 나누어 사용한다.

이와 같은 공유활동 속에서 참여자들 간 상호신뢰성이 없다면, 공유는 이뤄질 수 없다. 참여자들은 공유되는 자원에 대한 신뢰와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으로 지식, 물건, 정보, 재능, 공간 등을 공유한다. 즉, 오늘날 '공유활동'은 지역사회 내 형성되어 있는 높은 수준의 상호신뢰성에 기반을 두어 이뤄지며, 상호신뢰성이 높을수록 보다 성공적인 공유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도 향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 사회 내 상호신뢰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호신뢰성이 높은 지역은 이미 공유 활동이 이뤄지기 위한 지역 사회 내 기량이 갖춰진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상호신뢰성이 낮은 지역은 공유 활동을 실시하기 이전에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상호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3) 상호호혜성**

상호호혜성이란 간단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혜택을 받으면, 다른 누군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물을 교환

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상호호혜성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 교환행위는 서로 간의 목적에 따른 행위인데 반해, 상호호혜적 행위는 어느 정도 상호신뢰적 관계망이 형성된 구성원 간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공동체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오늘날 공유는 단순히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가치 창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호호혜성의 성질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공유는 지역사회 내 물건, 공간, 지식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이다. 공유가 활발한 도시에서 나는 자원을 제공하는 제공자이면서,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받는 수혜자이다. 즉, 이 같은 자원의 공급자이면서 수혜자라는 참여자의 성질은 공유가 단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아닌 상호호혜성에 기반을 둔 행위임을 보여준다.

## 2) 공유의 의의

### (1) 공유를 통한 사회자본[7]의 활성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소통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공유 활동은 지역사회 내 공유 활동에 기반을 둔 '공유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공유네트워크는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공유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간 다양한 상호작용을 가져온다. 그리고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지역 사회 내 상호 신뢰와 상호 호혜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된다. 또한, 공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 행위자로서 활동한다.

이와 같은 공유를 매개로 한 지역 사회 내 '공유 네트워크'의 형성은 결국 지역 사회 내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의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역 사회 내 축적된 사회 자본은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7) 사회자본이란 "협력적 행위의 촉진을 통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점을 가져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Putnam, 1993). 퍼트남은 집단 내 축적되어진 사회자본이 지역 사회 내 자발적 협력 촉진과 구성원 간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상호호혜적인 다양한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줄 뿐이 아니라, 지역 사회 내 문제 발생 시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역 사회 내 활발한 공유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이점을 넘어, 지역 주민들 간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서 침체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시민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키워준다. 이와 같은 공유를 통한 사회자본의 활성화는 오늘날 공유가 가져다주는 이점이자 공유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2) 공유의 경제적 이점**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이외 공유는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준다. 오늘날 '공유'는 새로운 경제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자원들을 공유함으로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불필요하게 많은 자원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러한 공유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결국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주며, 불필요한 자원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공유 활동들이 지역 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 활동들이 지속성을 갖고, 자생하기 위해서는 '공유' 속 경제적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가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넘어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재화를 생산하고, 이를 소비하는 구조가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대전시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 '공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사회 내 상호신뢰성이나 상호호혜성적 관계망 형성 및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 공유 지원 사업 초기에는 경제적 모델 발굴 이전에 지역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다양한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면, 이들이 지속되고 자생할 수 있는 경제적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절 기존 논의 검토

### 1. 공유도시 구축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공유도시 구축을 위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시도에서 이뤄졌다. 우선, 한국에서 최초로 '공유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한 서울시에서는 가장 많은 공유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가 이뤄졌다. 송미경(2015)은 공유도시 서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향후 공유도시와 공유경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기획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단순 물적인 자원의 공유를 넘어 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람 공유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유도시 서울'모델을 제시한다.

반정화(2017)는 '공유서울'이 서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유기업·시민 주도형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고 본다. 공유는 물건이나 공간, 개인의 재능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오늘날 서울시가 당면한 주택,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 중심의 정책을 통해 공유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공유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져야한다. 그동안 시가 중심이 된 정책들은 지역 사회 내 공유 기반 확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공유 문화가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반정화(2017)는 향후 공유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공유기업이 주도하는 공유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연구들 이외 고준호(2013, 2015)는 공유도시 서울 구축을 위한 교통 공유 체계에 대해 연구했으며, 서울시는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공유 정책 인지도 및 욕구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공유도시 서울'에 관한 연구들 이외에 장윤배, 강성익(2016)은 그동안 다양한 공유정책들을 분석하여 공유도시가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한다. 이들은 공유도시를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이며 물리적 측면에서는 도시 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유공간이 있는 도시”로 정희하면서, 공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유도시의 개념을 적용한 도시 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장윤배, 강성익, 2016). 이러한 도시 관리정책의 전환은 공유도시로의 전반적인 인식전환 뿐만이 아니라, ‘공유사회’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공유도시 구축을 위해 시는 공유정책들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공유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개선하고, 공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대전시에서도 공유네트워크 활성화 및 공유활성화를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최길수(2015)는 ‘대전시 공유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여, 대전시 공유네트워크 현황 조사 및 타시도 추진사례 비교하고, 공유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체 확산·발전 및 도시재생방안 모색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민선 6기 공약인 ‘함께 쓰는 공유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공유네트워크사업의 중·장기 실행계획을 제안한다. 최길수(2015)는 대전시 공유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대전시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경석(2017)의 연구는 최길수(2016)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대전시 공유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정경석(2017)은 “대전시의 공유네트워크 사업이 행정 및 민간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다양한 시민활동과 경제활동을 유도해내는 등 사회혁신 활동을 통한 도시공동체 회복에 훌륭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대전시의 공유네트워크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공유도시 대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공유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공유 기능 자원 검토나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진행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공유도시 대전’ 실현을 위한 대전시 공유실태를 분석하고, 공유도시 대전 구축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살펴본다.

최근에는 공유도시의 비전과 공유도시 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곽노완(2015)은 공유의 시대 속에서 '공유도시'라는 개념이 공동체 및 다른 영역들과 얼마나 겹쳐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공유도시의 비전을 분석한다. 공유도시의 많은 부분들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한 마을 공유지의 확충 등과 겹치고 있으며, 이 속에서 부정적인 부분들 또한 발견된다. 그러나 공유도시는 공유라는 새로운 가치를 다양한 공간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함으로서 그 긍정적 효과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확대 재생산 속에서 무엇보다 공유시대 속 새로운 공유의 세대, 즉 지역의 대학생들과 같은 젊은 G세대들이 "급진적인 공유의 새로운 주체로서 공유도시로의 진화시키는 한축"이 될 수 있다(곽노완, 2015). 이러한 공유도시 비전에 대한 곽노완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곽노완(2015)의 지적처럼 오늘날 공유 사업의 많은 부분들은 공동체 사업과 겹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겹침' 속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확대 재생산할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 대전시 또한 공유의 새로운 주체로서 지역의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윤배, 이주아, 강성익(2017)은 '공유도시 지표' 설정을 통해 공유도시 수준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본다. 장윤배 외(2017)에서 제시한 공유도시의 주요 지표는 〈표 2-1〉과 같다.

**[표 2-1] 공유도시 여건수준 및 필요수준 분석을 위한 지표**

| 구분 | 분석변수 | 변수 설명 |
|---|---|---|
| 공유도시여건 수준 | 공유서비스 | 자동차 공유, 주거공간 공유.<br>사무 및 회의실 공유, 물건 공유 |
| | 공유공간 | 차 없는 거리, 공원·녹지·광장 면적,<br>공공시설 개방, 문화체육시설 |
| | 공유기반 | 정보통신인프라, 교통 인프라,<br>공유제도, 사회적기업 |
| 공유필요수준 | | 도시낙후도, 주거수준, 저소득층 비율,<br>의료보육시설 수준 |

자료: 장윤배 외(2017). "공유도시 지표설정을 통한 공유도시 수준의 지역적 분포특성 분석-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2(3).

이러한 공유도시 지표설정을 통해 장윤배 외(2017)에서는 각 지역별 공유도시 여건수준을 확인하여 공유 필요수준 대비 공유도시 여건 수준이 높은 지역과 공유도시 여건 수준이 낮은 지역을 구분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공유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대전시 또한 대전시에 맞는 공유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구별 공유 수준을 측정하고, 공유 수준에 맞는 맞춤형 공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2. 공유자원 관련 선행연구 분석

공유자원은 사물, 공간, 지식, 경험 등 유·무형의 다양한 자원들을 포함하는 만큼 공유 자원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Uber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는 오늘날 공유하기 편리하여, 사물 공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동차의 공유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준호, 유경상(2103)은 공유교통의 시대에 자동차 공유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면밀히 분석한다. 고준호 외(2013)는 공유 교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카풀, 카셰어링, 버스, 자전거, 주차 공간으로 그 영역을 세분화하여 공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영역의 세분화는 교통 관련 다양한 공유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각각의 영역들이 제대로 작동해야지만 지역 사회의 교통 공유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공간 공유에 대한 연구는 크게 숙박과 공동주택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숙박은 에어비엔비의 성공사례처럼 집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정화, 박윤정(2015)은 숙박공유를 통해 지역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숙박공유란 집의 유휴 공간을 대여하여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숙박공유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향후 관광업과 연계하여 공유 숙박이 발전될 수 있다. 그리고 공유 숙박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며, 향후 숙박 공유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유 기업들이 생겨나 지역 사회의 여러 자원들이 공유될 수

있다. 즉. 숙박공유는 한국 공유 경제의 시발적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숙박 공유의 성공은 지역 사회 공유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민석(2013)은 유럽, 일본, 중미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집합주택의 공유 공간 계획을 살펴본다. 집합주택은 공간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형태로 공간의 공유 속에서 거주민들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맺으며, 관계망을 형성한다. 즉, 공간의 공유를 통해 단순 거주를 위한 공간이 아닌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공간이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공유를 통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변화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민석(2013)의 연구이외에도 손은하(2012), 장수정, 이혜수, 황연숙(2016) 등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공유공간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유가치 창출의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역 사회 내 지식 아카이브 구축은 지식 공유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지식들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진원, 장우권(2103)은 도시 기록 자원을 어떻게 보관하고, 아카이브로 구축할지를 모색한다. 도시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생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각 시도별로 지역의 기록을 생성하고, 보존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단순 기록의 보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기록들을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기록원 등과 같은 설립을 통해 도시 아카이브 구축과 그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인적 자원의 공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송미경(2015)은 서울시의 다양한 인적 자원 공유 행태를 분석한다. 서울시는 휴먼 도서관 멘토, 서울 e-품앗이, 대학생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인적 자원을 공유한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유용한 '재능'과 '경험' '품(시간)'을 함께 나누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유자원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유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지역 내 어떠한 공유자원들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공유의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공유는 지역사회 주민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런 공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로는 고준호(2015), 이민석(2013), 장윤배 외(2016)가 있다.

고준호(2015)는 서울시의 나눔카 사업을 통해 나타난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나눔카가 1대 도입될 때마다 약 8.5대의 차량이 대체되어, 차량 보유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나눔카 도입으로 불필요한 차량 보유 및 이용이 억제되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감소되며, 승용차 처분 및 구매 연기되어 가계지출이 절약되는 경제적 효과도 나타난다. 즉, 차량에 대한 공유서비스가 나타남에 따라 지역 사회 내 자원의 사회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민석(2013)은 공간의 공유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오늘날 공간 부족의 문제에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 이외에 공간 공유를 통한 공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변화는 거주민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여,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장윤배 외(2016)는 도시 내 다양한 자원의 공유 및 공유서비스의 발굴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재생과 외곽지역 도시 관리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각 도시의 공유도시 수준과 공유 필요성을 분석하여, 자원의 공유 및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 및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의 제공과 도시재생을 위한 공유 서비스, 인프라, 공유 공간 기반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즉, 공유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을 재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공유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공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공유로 인해 부정적인 효과들 또한 나타날 수 있다. 이성엽(2016)은 차량 및 숙박 공유를 중심으로 오늘날 공유경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유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공유

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이지만, 그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다. 공유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행태지만, 시장 경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공유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이나 공유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배분 등을 어떻게 보호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조성찬(2016)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유자원 사유화모델을 비판한다. 제주도는 공유자원을 '사유화 → 상품화 → 화폐화'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으나, 공유자원 사유화 속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배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들은 공유자원의 상품화 속에서 발생하는 이윤에서 배제되며, 나아가 지역의 공유자원을 상실하게 되어, 주민들에게는 파괴된 자연환경과 사유화된 공간만 남게된다. 이러한 조성찬(2016)의 연구는 오늘날 '공유사회' 속에서 공유가 지나치게 경제적 가치의 창출에 매몰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김묵한(2015)은 공유경제가 항상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공유경제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부족하고, 지역 사회 내 공유 경제에 관한 제도나 법적 장치들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가 자칫하면 사적 소유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이외 구본권(2014)은 지나친 정보 공유 속에서 원치 않는 정보에 대한 공유의 위험성을 제시하면서, 오늘날 공유의 권리와 함께 '잊혀질 권리'와 같은 공유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공유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대전시 공유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공유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공유의 긍정적인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DSI

# 국내 · 외 사례분석

1절 국내 사례분석

2절 국외 사례분석

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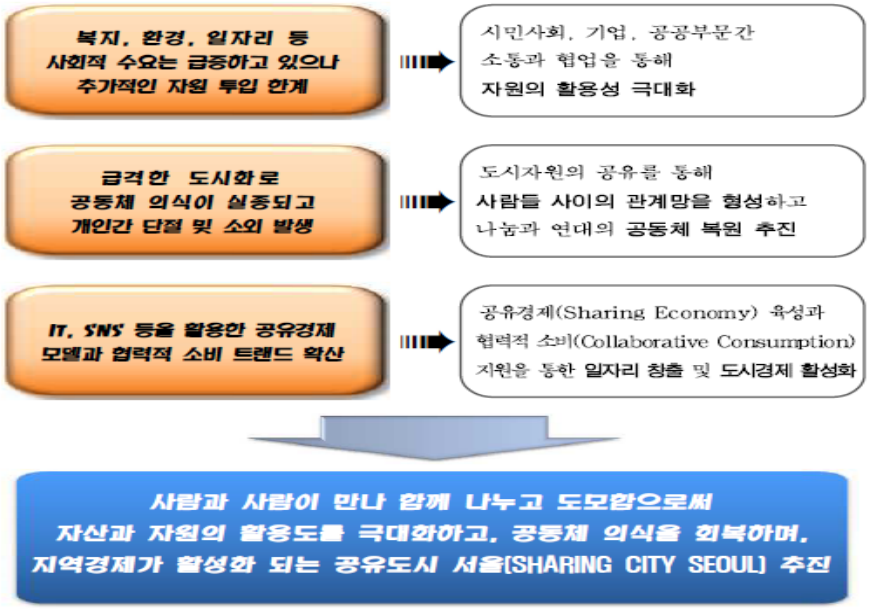
# 3장 국내·외 사례 분석

## 1절 국내 사례분석

### 1. '공유 서울'의 사례

#### 1) '공유 서울' 추진배경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이자 최대의 도시로서 고통혼잡, 주차 공간 부족, 주택 부족과 주택비용 상승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기존 도시 패러다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서울시는 '함께 도모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으로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다양한 공유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그림 3-1] '공유 서울' 추진배경**

자료: 서울특별시(2012).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추진계획』.

### 2) '공유 서울' 프로젝트

'공유 서울' 정책은 세계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유 경제 기업 사례[8]보다는 공유문화 및 공동체 활성화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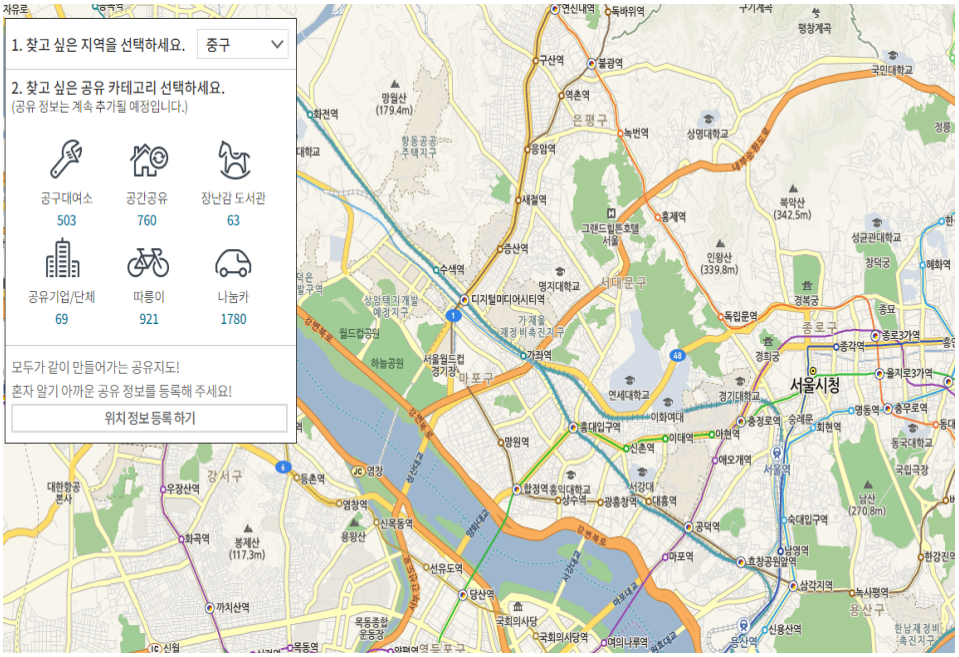
#### (1) 서울시 공유활성화를 위한 공유 플랫폼 '공유허브' 구축

2012년 '공유도시 서울'프로젝트를 추진한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공유활동들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와 운동을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유허브'을 구축한다. '공유허브'는 서울시, 자치구, 기업, 단체들의 공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2018년 현재 재단법인 홍합밸리/ANT 홀딩스에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다.

'공유허브'의 서비스는 크게 ① 공유스토리, ② 공유기업·단체, ③ 공유지도, ④ 공유 가이드로 이뤄진다. 먼저, 공유스토리는 지역의 공유소식을 전달하고, 이달의 공유 이벤트를 소개 및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지역 내 다양한 공유기업과 단체를 소개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한다. 이러한 기업 소개 및 상품의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사회 내 공유 기업과 단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지역 주민과 공유 기업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공유지도에서는 지역별 공유자원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특히, 서울시 공유지도 서비스는 다른 시도와 달리 공구대여소, 공간공유, 장난감 도서관, 공유기업/단체, 따릉이(공유자전거), 나눔카 등 서울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유 자원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갖는다([그림 2] 참고).

8) 서울시 공유경제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쏘카와 모두컴퍼니, 헬로마켓이 있다. 쏘카는 자동차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2014년 4만 명이었던 회원수가 2016년 135만명으로 약 30배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으며, 모두컴퍼니 또한 서비스 수가 2014년 1천 건에서 2016년 50만 건으로 500배 이상 증가하는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쏘카는 민간에서 830억원, 헬로마켓은 30억 원 등을 투자 받아 기업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했다(서울특별시, 2017).




**[그림 3-2] '공유허브' 공유지도 서비스**

자료: 서울시 공유허브 홈페이지(http://sharehub.kr).

마지막으로 공유가이드에서는 공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공유개념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화 된 자료들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단순 공유 가이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의 공유 정책을 소개하고, 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기록물들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이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유 아카이브를 통해 시민들은 정보 공개 청구 등과 같은 별도의 노력 없이 시의 공유 관련 보고서, 학술연구, 영상자료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인터넷 플랫폼인 '공유허브'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 정책을 알리는 한편, 공유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 스스로 공유 문화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의 다양한 공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보들을 인포그래픽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보다 직관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2)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경험도, 만족도를 살펴보고, 서울시민들의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과 기초 자료를 마련을 위해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2016년 상반기와 하반기 실시했다.

**[그림 3-3]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개요**
자료: 서울특별시(2016).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이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향후 도시의 공유 정책 방향 설정 및 시민 인식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시민들이 어떠한 정책에서 높은 만족도와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책 추진 방향과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제안 속에서 새로운 공유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의 공유 정책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 (3) 공유서울 페스티벌, 공유 한마당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한 공유문화 확산

서울시는 매년마다 공유 서울페스티벌, 공유 한마당 등과 같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공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공유서울 페스티벌」은 '공유도시 정책가·전문가·공유기업가 및 시민이 함께 그 동안의 공유도시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유체험으로 하나 되는 장'이다. 성공적인 공유 문화 확산을 통해 단순한 기업홍보부스형 박람회 진행은 지양하고 지역사회 참여형, 유휴공간 활용한 공유도시 체험형 행사 진행하여 공유참여자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 페스티벌에는 공유기업, 서울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 서울 실현을 위한 지역 구성원 간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림 3-4] 2018 공유서울페스티벌을 통한 공유문화 확산**

자료: 서울시 공유허브 홈페이지(http://sharehub.kr).

서울시 공유한마당은 시민들이 공유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유정책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자리이다. 행사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의 팀이 서울에 필요한 공유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유정책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공유정책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켜 서울시의 공유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공유서울 페스티벌과 공유한마당 이외에 서울시는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9], 서울 열린데이터광장[10], 공공와이파이 서울[11], 서울 사진은행[12], 휴먼 도서관 멘토[13], 서울 e-품앗이[14]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실시하여, 도시의 공유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표 3-1]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공유도시 서울 세부사업**

| 연번 | 유형 | 사업명 |
|---|---|---|
| 1 | 정보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 2 |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 3 | | 공공와이파이 서울 |
| 4 | | 서울 사진은행 |
| 5 | 사람 (재능, 경험,시간) | 휴먼도서관 멘토공유 |
| 6 | | 서울 e-품앗이 |
| 7 | | 대학생 주거정보 공유 |
| 8 | 공간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
| 9 | | 지하철역사 공간공유 |
| 10 | | 시민이 채우는 열린공간 |
| 11 | | 한지붕 세대공감 |
| 12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활성화 |
| 13 | 물건 | 나눔카 |
| 14 | | 공유서가 |
| 15 | | 공구도서관 |
| 16 | | 시립병원 의료장비 관리전환 |

자료: 송미경(2015). “공유도시 서울”. 『세계와 도시』.

### 3) 2017년도 공유서울 추진계획

9)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효과적으로 공개, 공유하기 위한 포털 창구로 ‘시민이 알아야 할’, ‘또 알고 싶어 하는’ 행정정보들을 발굴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행정과정에서 축적된 가치 있는 데이터를 공유

10) 열린시정 2.0에 의해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의 가치를 창출

11) 서울시 통신망 및 시설물 공유를 통해 무료 공공와이파이(WiFi) 제공(주요거리, 공원등)

12) 서울시가 소장한 사진과 시민이 보유한 다양한 시정 관련 사진자료를 공유 할 수 있는 플랫폼

13)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먼 라이브러리와 연계하여 재능 나눔 활성화 프로그램

14) 각 지역 품앗이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를 통해 회원들이 품과 물품을 거래 할 수 있는 교환제도

서울시는 매년 『공유서울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의 변화 및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공유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6년의 시간이 흐른 2017년에 서울시는 단순한 공유 인프라나 제도 개선을 넘어 공유정책이 시민의 생활에 자리 잡고, 공유 활동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공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로 변화된 도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전을 수립한다. 이러한 비전속에서 서울시는 일부 대표 공유 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닌 모든 공유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과 공유 도시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및 '공유 서울' 브랜드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3-5] 2017년도 공유서울 추진계획**

자료: 서울특별시(2017). 『2017년도 공유서울 추진계획』.

### (1) 공유기업 경쟁력 강화

일부 대표 기업을 제외한 현재 서울시 내 대부분의 공유기업은 아직 창업 초기 단계로 자생력 및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2017년 서울시 공유 정책은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공유기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공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공유 창업스쿨, 예비창업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공유기업 지정요건 강화, 공유경제 시민학교 등과 같은 예비 공유 기업 창업활성화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공유기업 사업비 지원 강화, 분야별 컨설팅 지원, 공유기업 투자 유치 지원 등과 같은 공유기업 성장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표 3-2] 2017년 서울시 공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유정책**

| 구분 | 사업명 | 내용 |
|---|---|---|
| 예비 공유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 공유창업스쿨 | 창업실전교육, 공유 상시 멘토제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
| | 공유기업 지정요건 완화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규정 삭제 |
| | 공유경제 시민학교 | 공유경제 교육, 창업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및 코칭, 창업 아이디어 공유 및 평가 |
| 공유기업 성장지원 | 사업비 지원 강화 | 지원사업 규모 확대, 사업비 지원 다양화 |
| | 분야별컨설팅 지원 | 공유지정 기업 중 컨설팅 희망기업 지원, 공유 기업단계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 공유기업 투자유치 지원 | '서울 창업기업 투자설명회'와 연계하여 공유기업 투자 유치 지원 |

자료: 서울특별시(2017). 『2017년도 공유서울 추진계획』.

### (2) 신규공유사업 발굴 등 공유문화 확산 지원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의 공유로의 접근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내 공유활동을 촉진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혜택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① 생활밀착형 공유사업 지원 확대, ② 공유마을 조성, ③ 학교내 공유문화 확산, ④ 공유서울 포럼 및 해커튼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공유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생활밀착형 공유사업 지원 확대 정책은 공구 도서관과 같은 생활 밀착형 공유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산하고, 신규사업을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나눔카, 주차장 공유, 공공시설 개방 등과 같은 주요 사업을 전 지구로 확대하는 한편,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지역 특화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실시한다. 둘째, 공유마을 조성 사업은 공유 자원을 아파트 단지나 마을단위에 집적화하여 생활 속 공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나 마을단위로 나눔카, 공공자전거 및 기타 다양한 공유 자원을 설치한다.

셋째, 학교내 공유문화 확산사업은 공유시대 속에서 공유를 이끌어 나아갈 '공유세대'의 공유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공유 경제 시민학교, 학교와 함께하는 공유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넷째, 공유서울 포럼 및 해커톤 개최 사업은 공유경제의 최신 동향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유서울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 및 네트워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유서울 포럼, 공유해커톤 등을 개최한다. 결국 이러한 서울시의 다양한 공유 정책은 단순한 공유 인프라나 제도 개선을 넘어 공유정책이 시민의 생활에 자리 잡고, 공유 활동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공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표 3-3] 2017년 서울시 신규공유사업 발굴 등 공유문화 확산 지원**

| 구분 | 사업명 | 내용 |
|---|---|---|
| 생활 밀착형 공유사업 지원확대 | 주요사업 전 자치구 확대 | 나눔카, 주차장 공유, 공공시설개방, 아이옷 공유, 공구도서관, 한지붕 세대 공감 등 다양한 공유 사업 확대 |
| | 지역특화 신규사업 발굴 | 공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
| 공유마을조성 |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모델화 및 나눔카, 공공자전거와 같은 시민생활에 밀접한 공유 자원을 아파트 단지나 마을 단위로 설치 |
| 학교내 공유문화 확산 | | 공유경제 시작학교 운영 및 학교와 함께하는 공유한마당 개최 |
| 공유서울 포럼 및 해커톤 개최 | 공유서울 포럼 | 공유전문가 초청 토론회, 글로벌 공유전문가 초청을 통한 세계 공유 트랜드 공유 |
| | 공유해커톤 |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해커톤 전시 발표회 개최 |

자료: 서울특별시(2017). 『2017년도 공유서울 추진계획』.

### (3) 공유도시 네트워크 강화

공유도시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크게 공유도시 협의체 운영사업과 공유경제 국제 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공유도시 협의체 운영 사업은 우수 공유정책의 전국적 확산과 중앙정부와의 원할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도시간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유도시 공동선언에 참여한 3개의 광역단체(서울, 광주, 대전)과 26개의 기초단체[15]와 공유도시 협의체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공유경제 국제 자문단 운영 사업은 '공유 서울'의 성공적인 공유 정책을 세계에 홍보하고, 세계의 공유 동향과 트랜드를 습득하며, 해외 주요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결국, 서울시는 이러한 공유도시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 공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유 서울' 브랜드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표 3-4] 2017년 서울시 공유도시 네트워크 강화 사업**

| 사업명 | 내용 |
|---|---|
| 공유도시 협의체 운영 | ● 공유도시 공동선언 참여도시 간 협력 사업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br>- 공유정책 확산을 위한 도시간 협력 공유사업 발굴<br>-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기업 지원 방안 발굴<br>- 공유경제 법·제도개선 등 중앙정부 협력사항 토론 |
|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운영 | ● 주요역할<br>- 시 공유정책 수시자문 및 세계 공유경제 동향정보 제공<br>- 해외 도시정부간 공유관련 협력관계 구축 매개 역할<br>- 공유포럼 등 공유관련 국제행사 개최 시 연사로 참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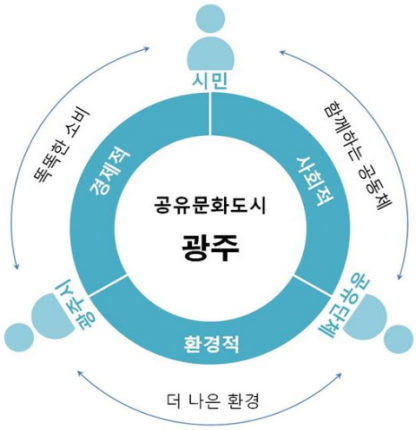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2017). 『2017년도 공유서울 추진계획』.

이처럼 서울시는 현재 상황에 맞는 공유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기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공유 서울' 가치의 성공적인 실현과 지속가능한 공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지역의 공유 사업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유정책을 점검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공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2. '공유문화도시 광주' 사례

15) 수원시, 성남시, 시흥시, 전주시, 광주광산구, 광주동구, 서울자치구(20)

2015년 2월 23일 광주시는 '더불어 누리는 광주 공동체 정신' 실현을 위해 '공유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16]하고, 본격적인 공유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갔다. 광주시는 '똑똑한 소비', '함께하는 공동체', '더나은 환경'을 목적으로 삼아 공유를 통해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림 3-6] 공유문화도시 광주 개념도**
자료: 광주광역시(2015)

이러한 공유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광주시는 공유광주센터를 개설했다. 그리고 광주시 또한 공유광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유문화도시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공유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단순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만 끝나는 것이 아닌 '스마트 시대'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 문화를 접하고, 공유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app)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17]

### ■ 스마트폰 앱(app) '공유광주'를 통한 공유 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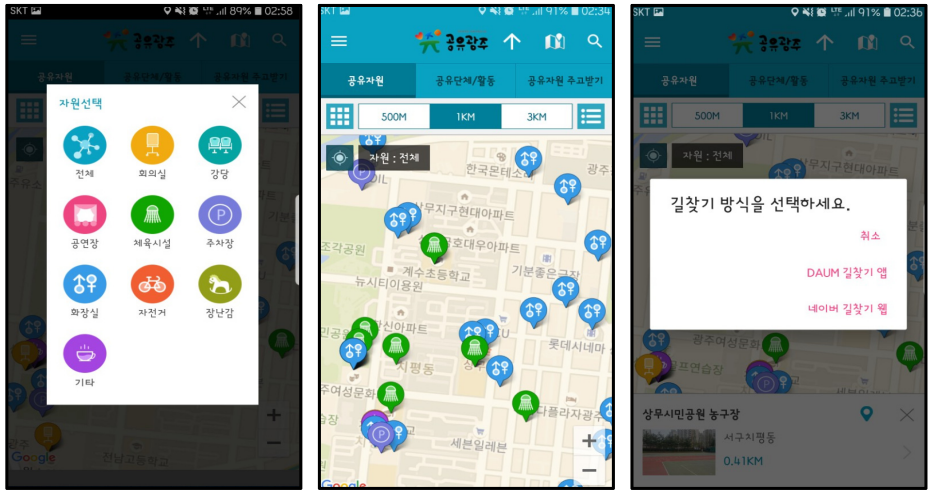
공유광주 앱은 지역주민들이 언제라도 쉽게 자신 주변의 공유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와 공유단체 및 활동을 소개하는 서비스, 공유 자원을 주고 받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 (1) '공유광주' 앱을 통한 공유자원 소개

16) '공유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로드맵은 2014년 7월 윤정현 광주시장이 취임사에서 '공유와 상생은 광주 시정이 추구하는 중심가치가 될 것이다'고 밝힌 후 공유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공유도시만들기 TF회의를 통해 마련됐다(노해섭. 2105.02.23. "광주시, '공유문화도시'를 도시브랜드로 육성". 아시아경제에서 재인용)

17) 서울시에서도 '스마트 서울맵'이라는 성격이 유사한 앱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 서울맵은 공유 정책 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반 정책을 다루고, 공유 활성화만을 목적으로 둔 앱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유광주’ 앱은 위치 기반 서비스와 연계하여, 스마트 폰 사용자의 위치를 하고, 현재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을 소개해준다. 그리고 사용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주변의 공유자원을 소개시켜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음(DAUM) 및 네이버(NAVER)의 길 찾기 앱과 연계하여 해당 공유자원까지 찾아갈 수 있는 네비게이션(navigation)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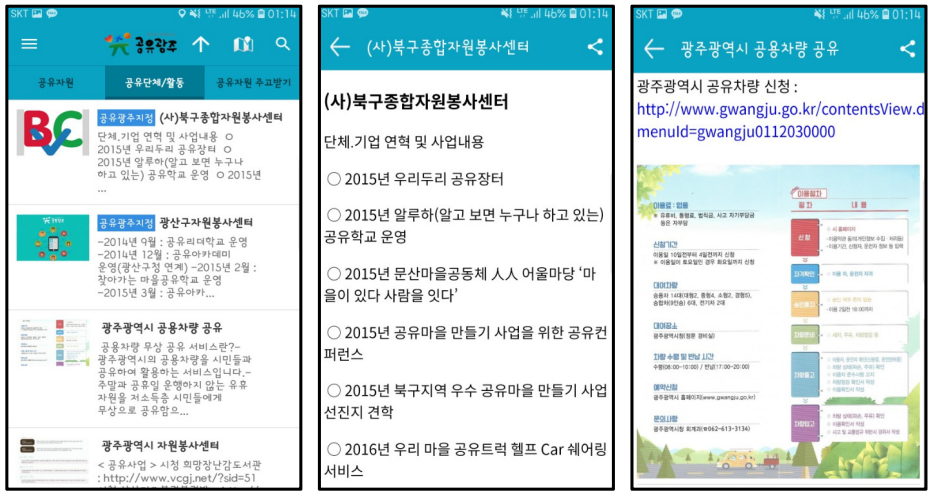

**[그림 3-7] ‘공유광주’앱을 통한 공유자원 소개**

이러한 앱을 통한 공유자원의 검색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유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특히, 오늘날 공유시대를 이끌어 갈 ‘공유세대’들은 그 특성상 컴퓨터 인터넷 보다는 스마트 폰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18] 즉, 앱을 통한 공유자원 정보 제공은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뿐만이 아니라, 공유세대들이 자연스럽게 공유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이점이 있다.

### (2) ‘공유광주’ 앱을 통한 공유단체 및 공유 활동 소개

18) 2017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발표한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2012년을 기점으로 가구 컴퓨터 보급률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7년 가구의 데스크탑 보유율은 61.3%에 불과하다. 반면, 스마트폰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2017년에는 87.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래 공유세대인 10대와 20대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각각 97.2%, 99.8%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유광주’ 앱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공유 단체 및 공유 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다. 지역주민들은 앱을 통해 자신의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공유단체 및 공유 활동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앱은 단순히 공유단체 및 공유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각 공유단체와 공유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19]도 제공해준다. 이러한 앱의 기능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역 사회의 공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지역 주민들의 공유 대한 관심과 다양한 공유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3-8] ‘공유광주’앱을 통한 공유단체 및 공유활동 소개**

### (3) ‘공유광주’ 앱을 통한 ‘공유자원 주고받기’

‘공유광주’ 앱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자원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공유자원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다. ‘공유자원 주고받기’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이 ‘광주재능기부센터’에 공유하기 원하는 자원을 등록하면, 앱에 해당 공유자원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해당 공유자원이 필요한 주민이

19) 예를 들어 공유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유단체의 연혁 및 사업내용,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제공해주며, 공유 사업이나 활동의 경우에는 해당 공유 사업과 활동에 대한 개념 설명과 이용 방법, 문의전화 및 홈페이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해준다.

정보를 확인하고 광주재능기부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앱을 통한 공유자원 주고받기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공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심의 공유가 아닌, 시민들의 생활 속 공유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3-9] '공유광주'앱을 통한 공유자원 주고받기**

### (4) '공유광주' 앱의 기타 기능

지역 공유자원 map. 공유단체 및 활동 소개, 공유자원 주고받기 이외에 공유 광주 앱은 공유광주 소개, 공유 광주 뉴스 및 소식을 제공해준다. 공유광주 소개 기능에서는 공유의 개념, 공유의 효과, 공유 광주 가이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공유광주 앱은 공유 활동 소식, 언론보도, 공유 정책이나 사업 등 공유 광주의 다양한 뉴스 및 소식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기능은 시민들이 공유 광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공유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 3. 국내 사례의 시사점

### 1)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공유 정책 수립 및 시행

성공적인 공유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공유활성화 기본계획 이외에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공유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 가장 성공적으로 공유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서울시 또한 기본계획과 함께 매년 도시의 환경 변화와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성공적인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에서 수립한 공유활성화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유도시 선언을 한 2012년에는 공유 기반 및 역량 파악을 위한 조사하였으며, 2013년에는 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사업 개발, 2014년과 2015년에는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개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한 공유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에는 시 주도의 공유 사업을 넘어, 생활 속 공유 문화 실현을 위한 공유 사업을 실시했다.

결국 이러한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공유 정책 수립과 시민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공유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 또한 향후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이외에 연도별로 세부적인 공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사회 환경 및 지역 주민들의 니즈에 맞는 공유 정책 개발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 2) 공유 활성화 및 효율적 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광주시는 '공유 광주'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공유 광주' 앱은 시민들이 자신 주변에 있는 다양한 공유 자원을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와 연계한 네비게이션 기능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앱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자원을 나눠주고, 필요한 자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앱을 통한 자원의 교환은 시

민들이 직접 공유 문화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이외에 앱을 통해 시민들은 시·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라도 공유정책, 지역의 공유 단체 및 활동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공유광주' 앱은 지역 사회의 공유 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공유문화도시 광주'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 또한 다양한 공유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폰 앱 개발을 통해 대전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유 문화를 체험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공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2절 국외 사례분석

## 1. 일본의 '공유정책'

일본은 2000년대 이후부터 지역의 주거부족, 환경오염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유경제를 통한 특색 있는 관광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공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공유정책을 넘어, 도시 전체가 공유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도시(シェアリングシティ)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 공유도시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하는 공유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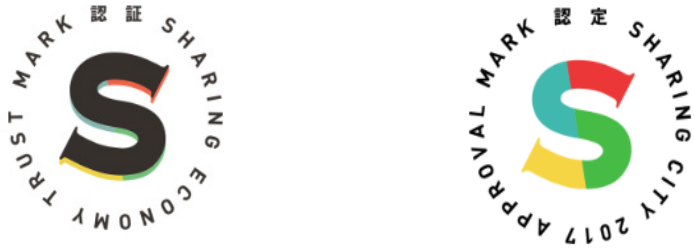
**[표 3-5] 일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서비스 예시**

| 행정서비스유형 | 해결과제 | 공유서비스 예시 |
|---|---|---|
| 고용창출 |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 Cloud Work(고용주-구직자 직접 매칭 플랫폼)<br>- LANCERS(기술 공유 서비스)<br>- Coconala(개인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판매하는 플랫폼) |
| 양성공동 참여 |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 - 애니타임즈(일상 기술 공유)<br>- 타스카지(가사대행, 가정부 매치) |
| 사회복지 | 육아에 좋은 환경 조성 | - Asmama(아동 통학/통원, 위탁 육아 등의 공유 경제 플랫폼)<br>- 키즈라인(육아도우미 매칭플랫폼) |
| 공공교통 | ·과소지역에 대체 공공교통수단 창출<br>·관광객 대상 새로운 이동수단 창출 | - UBER (공유차량)<br>- COGICOGI(공유 자전거)<br>- Notteco(장거리 운전 공유) |
| 관광진흥 | 관광 활성화에 따른 민박시설 수요 대처 | - Airbnb(민박)<br>- Homeaway(민박) |
| | 관광가이드, 관광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 Tabica(당일 관광체험)<br>- Huber(방일 외국인 여행자 대상 가이드 매치)<br>- Tadaku(외국인이 가르쳐 주는 가정요리 교실) |

| 행정서비스유형 | 해결과제 | 공유서비스 예시 |
|---|---|---|
| 공적 부동산활용 |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시설 공유 | - 스페이스 마켓(유휴공간 공유)<br>- 노키사키(유휴공간 공유 및 주차장 일시 개방)<br>- 토메레타(공유주차장) |
| 민간자산 활용 | 빈 집/점포/빌딩 등 민간부동산 공유 | |
| 교육 | 평생교육 | - Street-academy(교육자 매치 공간) |
| 농림수산 | 농림, 수산 자원을 활용한 그린 관광 개발 | - Tabica(당일 관광체험) |

자료: 일본공유경제협회(Sharing Economy Association Japan); 김장훈(2018). "[무역관 르포] 일본, 공유도시 추진으로 도시문제 해결도모".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8.03.06.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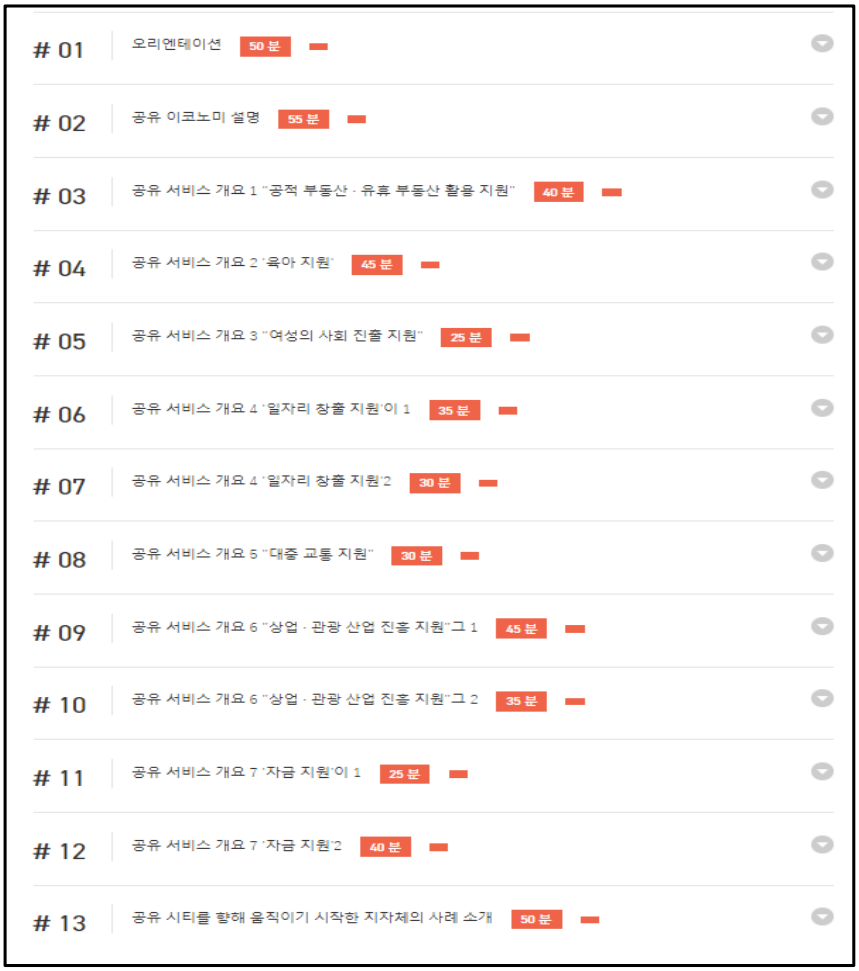
일본은 공유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일본공유경제협회(Sharing Economy Association Japan)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공유경제협회는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우수 공유 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① 협회에 가입한 공유 기업의 서비스를 2개 이상 도입, ② 도입한 공유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홍보 실시라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한 도시들을 공유도시로 인증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유도시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이에 대한 인증마크를 발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유도시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도시로 인증된 도시들은 네트워크 형성 지원(교류회 참석 지원), 공유 도시 홍보, 공유 사업 진행시 공식 인증 마크 사용, 공유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는 치바시, 홋카이도 등 다양한 시도들이 공유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그림 3-10] 일본의 공유경제 인증 마크와 공유도시 인증마크**

자료: 일본공유경제협회 홈페이지. "https://sharing-economy.jp".

이러한 인증이외에 일본 공유 경제 협회는 공유도시 연구소를 운영하여, 공유도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유도시 교육은 공유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부터 공유 서비스 지도, 공유 프로세스 등 공유에 대한 다양한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유도시 강의는 동영상으로 제공되며, 일본공유경제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정부가 주도해 공유도시를 육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유 경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그림 3-11] 일본 공유도시 교육프로그램: '공유도시 입문과정'**

주: 일본공유경제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공유도시 입문과정 내용을 번역한 사진임.
자료: 일본공유경제협회 홈페이지. "https://sharing-economy.jp".

## 2. 유럽연합(EU)의 공유도시

유럽연합은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을 위해 공유도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공유네트워크에는 도시, 공유기업, 시민단체 등 35개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 내 공유도시는 크게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공유의 가치를 통해 해결하고, 나아가 공유를 통한 가치 창출을 통해 스마트시티(Smart City) 구축을 목표로 하는 'Lighthouse' city와 이들의 협력도시인 'Fellow' city로 구분할 수 있다.[20] 유럽연합은 성공적인 공유도시 실현을 위해 이 도시들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강조한다.

**[그림 3-12] EU 공유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
자료: 유럽연합 공유도시 홈페이지. "http://www.sharingcities.eu/".

EU는 성공적인 공유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 에너지 관리, e-mobility 등과 같은 주요활동(Key activity)을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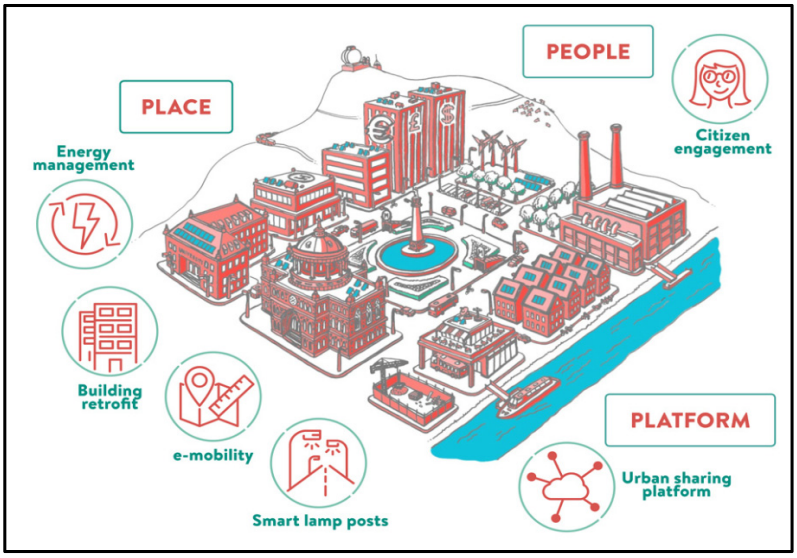
---

20)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Lighthouse' city는 공유 에너지 관리시스템, 시민참여를 통한 공유 플랫폼 구축, 공유전기 이동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공유사업을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전략도시를 의미하며, 'Fellow' city는 다양한 공유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검증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러한'Lighthouse' city와 'Fellow' city는 다음과 같다(유럽연합 SHARING CITES 홈페이지).
· 'Lighthouse' cities : Lisbon - London - Milan
· 'Fellow' cities : Bordeaux - Burgas - Warsaw

**[표 3-6] EU 공유도시 실현을 위한 주요활동(Key activity)**

| 구분 | 주요활동 | 내용 |
|---|---|---|
| 사람 | 시민참여 | - 공유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인식개선<br>- 다양한 공유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 촉진 |
| 장소 | 통합에너지관리 | - 도시 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시 전체 시스템과 연계한 통한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br>- 전기자동차, 건물 저탄소 에너지 체계 지원 등을 위한 통합적인 에너지 관리시스템 |
| | 건물 개조 | - 공유공간으로의 건물 개조<br>- 건물 내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br>- 디지털 제어(digital controls) 시스템 구축 |
| | e-mobility | ● 저탄소 공유이동시스템 구축<br>- 공유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 공유, 스마트 주차, 전기 자동차를 활용한 물류 시스템 구축, 충전소 설치 등 |
| | 스마트 가로등 (smart lamp post) | - 다른 스마트 서비스 인프라(충전소, 센서를 통한 교통 모니터링, Wifi 등)와 통합된 스마트 조명 시스템 구축 |
| 플랫폼 | 도시공유플랫폼 | - 공공 데이터(Open data)를 통한 다양한 도시 공유 플랫폼 구축 |

자료: 유럽연합 공유도시 홈페이지. “http://www.sharingcities.eu/”.




**[그림 3-13] EU 공유도시 실현을 위한 주요활동(Key activity)**
자료: 유럽연합 공유도시 홈페이지. “http://www.sharingcities.eu/”.

이처럼 유럽연합은 공유를 미래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주요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공유도시 실현을 위해 공유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핵심 역량(활동)을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사례처럼 향후 공유도시 개발은 공유를 단순히 경제적인 혹은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미래 도시 구축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공유 가치에 기반을 둔 전반적인 도시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미국의 '공유정책'[21)]

미국의 공유관련 정책은 크게 유휴토지 공유, 주택 공유, 교통공유, 일자리 창출 공유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휴토지 공유는 도심 지역 내 유휴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도시 텃밭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 유휴토지 조사, 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 도시 농업 작물 판매 허용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휴토지 공유의 대표적인 도시로는 센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이 있다.

둘째, 주택공유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코하우징 등에 대한 허가 확대, 주거지역에서 단기임대 허용, 신규 건축 시 설계에 있어 공유 가치 반영, 협동조합 공동주택 개발 지원 등이 있다. 주택 공유 정책은 주택난이 심각한 대도시 지역에서 주로 실시되며, 대표 도시로는 뉴욕이 있다.

셋째, 교통공유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공동주택 지역의 카쉐어링 프로그램, 카쉐어링을 위한 주차시설 및 서비스, 안전한 라이드 홈 프로그램, 공공자전거쉐어링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 정책들 이외 카쉐어링 참여 차량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넷째, 일자리 창출 공유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유휴 사업공간 지원, 신생 공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철폐, 새로운 협동조합의 인큐베이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공유는 지역 사회 내 공유기업들의 성장으로 지역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 공간적, 제도적 지원이 주를 이룬다.

---

21) 김은란, 차미숙, 김상조, 박미선(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공유정책의 주요 특징은 도시와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공유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카쉐어링 및 카쉐어링 지원제도 마련, 유효토지를 통한 도시농업 지원, 공공주택 지원, 공유관련 사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 이외에 미국은 공유 활동 참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성 담보대책에 중점을 둔다는 점도 미국 공유정책의 중요한 특징이다. 오늘날 공유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공유 경제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은 '안전'에 초점을 두어 공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쉐어링 사업의 경우, 단순히 카쉐어링 사업만 실시하는 것이 아닌 카쉐어링 보험, 카쉐어링 운전자에 대한 신원조사 등을 실시하여 카쉐어링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공유 활동에서 발생할 수 다양한 안전 문제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해주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은 사용자들이 큰 부담없이 공유 활동에 참여하고, 공유 경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공유 정책에 대한 안전망 확보는 도시 공유 정책 초기 단계에 있는 대전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대전시 또한 단순히 공유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공유 정책 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4. 국외 사례의 시사점

### 1) 우수 공유 기업 인증을 통한 공유 기업 육성

일본은 정부가 주도해 우수 공유 기업 및 공유 도시를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주도 공유 정책의 핵심은 우수 공유 기업과 도시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것에 있다. 일본은 우수 공유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을 실시함으로써 이들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우수 공유기업

들을 공유 사업에 참여시키고, 도시에 연결시켜줌으로써 우수 공유 기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 네트워크는 일본의 공유 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인증 시스템이 갖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육성 체계를 보여준다. 지역사회 내 공유기업은 지속가능한 공유 문화 확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대전시 또한 단순 시민들을 위한 공유 사업이외에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공유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전시 또한 일본의 인증을 통한 공유 기업 육성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2) 공유 가치에 기반을 둔 도시 디자인

유럽연합은 공유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공유가 갖는 사회적, 환경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유를 미래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중요한 가치이자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유럽 연합은 단순히 몇 개의 공유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 내 공유를 활성화 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유 가치에 기반을 둔 도시 전반의 디자인을 설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의 사례는 공유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 혹은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을 넘어, 미래 도시 구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향후 대전시 또한 단편적인 공유 정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유도시 대전' 실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도시 디자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3) 다양한 공유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

공유정책의 수립 및 공유 사업의 발굴 속에서 '공유'는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 활동의 이면에는 공유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유 정책의 개발은 공유 활동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은폐하고, 재생산 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유가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유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한 안전망의 구축이 중요하다.

미국은 공유 활동 참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성 담보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은 공유 활동에서 발생할 수 다양한 안전 문제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해주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큰 부담 없이 공유 활동에 참여하고, 공유 경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공유 정책에 대한 안전망 확보는 도시 공유 정책 초기 단계에 있는 대전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대전시 또한 단순히 공유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공유 정책 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DSI

# 대전시 공유실태 분석

1절 법적 · 제도적 현황

2절 대전시 공유자원

3절 대전시 공유사업

4절 공유도시 대전 SWOT 분석

# 4장

# 4장 대전시 공유실태 분석

## 1절 법적·제도적 현황

### 1.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2015.2.17.제정)

대전시는 공유활성화를 통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지원조례는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항들은 대전시 공유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원조례에서 사용한 공유, 공유단체, 공유기업, 공유네트워크의 정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1]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속 공유 개념 정의**

| 개념 | 정의 |
|---|---|
| 공유 |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 공유단체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
| 공유기업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
| 공유네트워크 | 공유를 위한 협력적 공동체인 사회관계망 |

자료: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 2018.4.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공유 개념 이외 지원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과 기업 간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제3조),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를 위한 공유사업 발굴, 공유단체 지원, 세미나 개최 등의 정책 추진(제4조), 공유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제5조의 2), 공유활성화지원센터 운영(제7조의 2), 공유활성화 위원회의 설치(제8조) 등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조례의 각 항목별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2]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주요 내용**

| 법률 | 주요내용 |
|---|---|
| 제3조<br>(시장의책무) | ●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실시<br>● 자치구의 공유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활성화 정책 추진 |
| 제4조<br>(공유활성화 정책) | ● 공유사업의 발굴 및 실천지원<br>● 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 육성・지원<br>● 공유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과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
| 제5조의2<br>(기본계획 수립) | ● 공유활성화 추진체계와 기반 구축<br>● 대전광역시의 특성에 맞는 공유 시책 및 전략<br>● 공유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
| 제5조의3<br>(시행계획 수립) | ● 매년 공유활성화시행계획 수립<br>-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br>-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 제7조의2<br>(공유활성화지원센터) | ●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센터 운영(단, 지원센터는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운영)<br>- 공유활성화 정책의 추진<br>- 공유활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홍보<br>- 공유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 |
| 제8조<br>(공유활성화위원회의 설치) | ● 공유활성화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여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위원회 설치<br>- 공유활성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br>- 기본계획 및 공유활성화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br>- 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자료: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 2018.4.20. 일부개정.

## 2.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2015.12.31.제정)

대전시는 지원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지원조례는 2015년 2월 제정 이후 5차례 일부 내용이 개정된 것에 반해, 시행규칙은 2015년 12월 제정 이후 1차례의 개정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시행규칙에서는 사회문제의 범위(제2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에 관한 내용(제3조 ~ 제7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의 각 항목별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3]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주요 내용**

| 법률 | 주요내용 |
|---|---|
| 제2조<br>(사회문제의 범위) |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br>●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이웃과의 단절 등 복지관련 문제<br>●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br>●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쓰레기 문제 등 환경관련 문제<br>●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 제3조<br>(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 ● 공유단체<br>-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br>-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구<br>-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br>● 공유기업<br>-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br>-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구<br>-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

자료: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 2018.4.20. 일부개정.

## 3. 대전시 공유 법률과 서울시 공유 법률 비교

대전시 공유법률과 서울시 공유법률을 비교해보면, 대전시 조례에는 공유활성화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내용(제7조의2), 공유네트워크에 대한 정의 및 지정에 대한 내용(제2조, 제6조)이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반면, 서울시 조례에는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정의[22]와 지원 관련 내용(제2조, 제9조의2), 시민 등의 참여(제4조), 공유 현황 실태조사(제5조의3), 공유제도개선자문단(제5조의4), 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제7조) 등의 내용이 있으나, 대전시 조례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22) '우수 공유 참여자'란 "공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의미"함(『서울특별시 공유 촉진조례』. 2017.9.21. 일부 개정)

**[표 4-4] 대전시와 서울시 공유 활성화 조례 비교**

| 구분 | 대전시 | 서울시 |
|---|---|---|
| 공통점 | ■ 공유관련 기본 개념 정의<br>■ 시장의 책무<br>■ 공유 활성화 정책 수립<br>■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br>■ 공유기업 지정<br>■ 보조금 지원 | ■ 공유관련 기본 개념 정의<br>■ 시장의 책무<br>■ 공유촉진 정책 수립<br>■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br>■ 공유기업 지정<br>■ 보조금 지원 |
| 차이점 | ■ 공유활성화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내용<br>■ 공유네트워크에 대한 정의 및 지정에 대한 내용 | ■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정의와 지원 관련 내용<br>■ 시민 등의 참여<br>■ 공유 현황 실태조사<br>■ 공유제도개선자문단<br>■ 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 |

대전시가 향후 공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성공적인 공유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와 자치구 별 맞춤형 공유 정책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수 공유 사업 사례 및 공유기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 또한 서울시처럼 공유현황 실태 조사와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정의와 지원, 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추가하여, 관련 제도 및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2절 대전시 공유자원

## 1. 공유 기반 자원 현황

공유 기반 자원은 공유 활동이 원할히 나타날 수 있는 인프라나 환경 등을 포함한다. 다양한 공유 기반 자원들 중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의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 현황, 공동체 사업 현황, 작은도서관 수, 공유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현황,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현황을 살펴본다.

### 1) 대전시 사회적 기업 현황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오늘날 공유기업의 한 형태로 인정받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은 시민들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지역의 사회적 기업은 공유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2018년 7월 기준 대전의 인증 사회적 기업 수는 54개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수가 적으며, 전국 17개 시·도로 그 범위를 확대해도 제주도(48개), 세종시(10개)를 제외하곤 사회적 기업의 수가 가장 적었다. 반면, 대전시와 인구가 비슷한 광주시는 인증 사회적 기업의 수가 102개로 7대 특·광역시 중 서울시(354개)와 인천시(113개) 다음이었으며,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많았다.

**[표 4-5] 전국 17개 시·도 사회적 기업 수(2018.7.03. 기준)**

(단위: 개소,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
| 354 (17.9) | 100 (5.1) | 65 (3.3) | 113 (5.7) | 102 (5.2) | **54 (2.7)** | 74 (3.7) | 10 (0.5) | 334 (16.9) |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강원 | 제주 | 계 |
| 84 (4.2) | 93 (4.7) | 121 (6.1) | 100 (5.1) | 128 (6.5) | 88 (4.4) | 110 (5.6) | 48 (2.4) | 1,978 (100)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대전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 서비스 제공형 1개, 일자리 제공형 35개, 지역사회 공헌형 2개, 혼합형 11개, 기타형 5개로 나타났다. 일자리 제공형이 약 64.8%를 차지하여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표 4-6] 대전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2018.7.03. 기준)**

(단위: 개소, %)

| 계 | 사회적 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
| 54<br>(100.0) | 1<br>(1.9) | 35<br>(64.8) | 2<br>(3.7) | 11<br>(20.4) | 5<br>(9.3)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대전시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운동 1개, 교육 9개, 문화·예술 4개, 문화재 1개, 보건 1개, 사회복지 4개, 청소 4개, 환경 1개, 기타 29개로 나타났다. 기타 유형이 약 53.7%를 차지하여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표 4-7] 대전시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별 현황(2018.7.03. 기준)**

(단위: 개소, %)

| 계 | 관광 운동 | 교육 | 문화 예술 | 문화재 | 보건 | 사회 복지 | 청소 | 환경 | 기타 |
|---|---|---|---|---|---|---|---|---|---|
| 54<br>(100.0) | 1<br>(1.9) | 9<br>(16.7) | 4<br>(7.4) | 1<br>(1.9) | 1<br>(1.9) | 4<br>(7.4) | 4<br>(7.4) | 1<br>(1.9) | 29<br>(53.7)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마지막으로 대전시 자치구별 사회적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9개, 중구 13개, 서구 10개, 유성구 13개, 대덕구 9개로 나타났다. 중구와 유성구가 각각 13개로 가장 많고 동구와 대덕구는 각각 9개로 가장 적었으나, 자치구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4-8] 대전시 자치구별 사회적 기업 현황(2018.7.03. 기준)**

(단위: 개소, %)

| 계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
| 54<br>(100.0) | 9<br>(16.7) | 13<br>(24.1) | 10<br>(18.5) | 13<br>(24.1) | 9<br>(16.7)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 2) 대전시 마을기업 현황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의미한다(행정자치부. 2017). 마을기업 또한 공유기업의 한 형태로 시민들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지역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대전시의 마을기업 수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5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17개 시·도 기준으로는 4번째로 적은 수이다. 그리고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을 제외하곤 가장 적은 수치이다.

**[표 4-9] 전국 시·도별 마을기업 수(2015년말 기준)**

(단위: 개,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
| 97<br>(7.2) | 75<br>(5.6) | 83<br>(6.2) | 59<br>(4.4) | 52<br>(3.9) | **51**<br>**(3.8)** | 28<br>(2.1) | 13<br>(1.0) | 169<br>(12.6)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전체 |
|---|---|---|---|---|---|---|---|---|
| 100<br>(7.5) | 73<br>(5.4) | 96<br>(7.2) | 99<br>(7.4) | 123<br>(9.2) | 97<br>(7.2) | 99<br>(7.4) | 28<br>(2.1) | 1,342<br>(100.0) |

자료: 한국지역진흥재단(2017).“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변경중심) 해설 및 방향”. 마을공동체 이슈프리즘 13. pp 1~15; 박노동(2017). 『마을기업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자치구별 마을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은 중구와 유성구가 각각 1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구 9개, 동구 7개, 대덕구 6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정 이후 미운영 마을기업은 서구가 5개로 가장 많았

다. 이어서 유성구 4개, 동구 3개, 중구 1개 순이었다. 자치구별 미운영률은 서구와 동구가 각각 35.7%, 30.0%로 높았다. 유성구도 22.2%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미운영률을 보였다. 반면, 중구는 6.7%로 미운영률이 낮았고, 대덕구는 아직까지 지정이후 미운영된 마을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자치구별 마을기업 운영 및 미운영현황(2016년말 기준)**

(단위: 개, %)

| 구분 | | 전체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
| 지정마을기업 | | 63(100.0) | 10(15.9) | 15(23.8) | 14(22.2) | 18(28.6) | 6(9.5) |
| | 운영 | 50(100.0) | 7(14.0) | 14(28.0) | 9(18.0) | 14(28.0) | 6(12.0) |
| | 미운영 | 13(100.0) | 3(23.1) | 1(7.7) | 5(38.5) | 4(30.8) | 0(0.0) |
| | 미운영률 | 20.6 | 30.0 | 6.7 | 35.7 | 22.2 | 0.0 |

자료: 대전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내부자료; 박노동(2017). 『마을기업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자치구별 마을기업의 사업유형은 동구는 가공, 식품, 카페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중구는 문화가 3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리고 서구는 식품이 55.6%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는 식품이 42.9%로 많았다. 또한 유성구는 기술기반 사업이 21.4%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대덕구는 가공이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11] 자치구별 운영마을기업의 사업유형**

(단위: 개, %)

| 구분 | 전체 | 가공 | 식품 | 문화 | 카페 | 교육 | 기술기반 | 기타 |
|---|---|---|---|---|---|---|---|---|
| 전체 | 50(100.0) | 8(16.0) | 18(36.0) | 7(14.0) | 6(12.0) | 3(6.0) | 4(8.0) | 4(8.0) |
| 동구 | 7(100.0) | 2(28.6) | 2(28.6) | 1(14.3) | 2(28.6) | 0(0.0) | 0(0.0) | 0(0.0) |
| 중구 | 14(100.0) | 2(14.3) | 4(28.6) | 5(35.7) | 0(0.0) | 1(7.1) | 1(7.1) | 1(7.1) |
| 서구 | 9(100.0) | 2(22.2) | 5(55.6) | 0(0.0) | 0(0.0) | 1(11.1) | 0(0.0) | 1(11.1) |
| 유성구 | 14(100.0) | 0(0.0) | 6(42.9) | 0(0.0) | 3(21.4) | 1(7.1) | 3(21.4) | 1(7.1) |
| 대덕구 | 6(100.0) | 2(33.3) | 1(16.7) | 1(16.7) | 1(16.7) | 0(0.0) | 0(0.0) | 1(16.7) |

주: 각 마을기업의 주요생산품을 바탕으로 사업을 유형화함. 가공은 가구제작, 비누생산, 의류리폼, 목공예 등을 주요 생산품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 디자인, 장치개발, 앨범제작 등의 기술기반형 사업을 의미. 청소, 육아, 체험학습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대전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내부자료. 박노동(2017). 『마을기업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대전시 마을기업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5년은 상근 93명, 비상근 150명으로 총 243명이 마을기업에 종사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상근 124명, 비상근 177명으로 총 301명이 마을기업에 종사하여, 2015년 대비 약 23.9%가 증가했다. 상근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33.3%였고, 비상근 일자리의 증가율은 18.0%로 상근 일자리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4-12] 대전시 마을기업 일자리 현황(2016년말 기준)**

(단위: 천원)

| 2015년(A) | | | 2016년(B) | | | 증가율[1)] |
|---|---|---|---|---|---|---|
| 전체 | 상근 | 비상근 | 전체 | 상근 | 비상근 | |
| 243<br>(100.0) | 93<br>(38.3) | 150<br>(61.7) | 301<br>(100.0) | 124<br>(41.2) | 177<br>(58.8) | 30.3 |

주1: 증가율 = {(B-A)/A}×100 (전체 일자리 기준)
자료: 대전시 내부자료; 박노동(2017). 『마을기업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 3) 대전시 마을 공동체 사업 현황

공유 문화의 확산과 활성화 있어 지역 내 축적된 상호신뢰성과 상호호혜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 내 축적된 상호신뢰성과 상호호혜성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시민들은 공유 문화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 내 축적된 상호신뢰성과 상호호혜성은 공유 문화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전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성장하고,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 마을 공동체 사업의 핵심은 '자연적 성장주기(natural life cycle)'[23)]에 따라 모이자(씨앗~새싹), 해보자(새싹~열매), 가꾸자(숲)와 같이 단계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있다. 각 단계별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모이자 사업(씨앗~새싹)은 마을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자와 멘토와의 멘토링을 통한 모임구성과 마을자원 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모이자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모임을 결성하여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3) 자연적성장주기(natural life cycle)란 식물이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고, 새싹에서 열매가 나오며,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면서 성장하는 식물의 성장단계를 의미한다.

공동체와 마을활동가를 발굴하고, 이웃의 소중함과 믿음이 싹트는 마을공동체 정신 함양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해보자(새싹~열매) 사업은 동아리수준을 넘어 공익적 활동으로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시각이 형성되는 시기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유서가, 마을조사, 텃밭, 돌봄교실, 마을미디어, 마을 학교, 마을워크샵, 소규모 마을축제 등 주민역량을 강화 하는 프로젝트 사업과 2개 이상의 마을공동체 협업사업을 지원한다. 이러한 해보자 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성을 갖춘 신뢰와 배려의 공동체를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간 협업 등 다 양한 네트워크 결합으로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꾸자(숲) 사업은 마을의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결합, 마을의 적합한 사업모델이 구체화되면서 민-민, 민-관 등 마을 거버넌스가 느슨한 형태로 생성되는 시기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여행, 마을방과후, 동네부엌 등 마을활성화 프로그램(공간 리모델링비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지원한다. 이러한 가꾸자 사업은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의 직접화를 통해 대전형 공동체 사업의 모델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공동체간 네트워크 가 결합하여 마을 거버넌스 형성으로 공동체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각 사업별 참여 공동체 수를 살펴보면, 모이자 사업은 2013년 116개, 2014년 103개, 2015년 70개, 2016년 30개, 2017년 25개로 연도가 지남에 따라 참여하는 공동체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모이자 사업의 성격이 신규 마을 공동체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보자 사업은 2013년 50개, 2014년 40개, 2015년 40개, 2016년 51개, 2017년 42개의 마을공동체가 참여했으며, 가꾸자 사업은 2013년 5개, 2014 4개, 2015년 2개, 2016년 4개, 2017년 10개의 마을 공동체가 참여했다.

2017년 구별 참여공동체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는 모이자 3개, 해보자 7개, 가꾸자 2개 총 12개의 마을공동체가 참여했다. 중구는 모이자 2개, 해보자 7개, 가꾸자 3개로 총 12개의 마을공동체가 참여했으며, 서구는 모이자 8개, 해보자 8개, 가꾸자 1개로 총 17개의 마을공동체가 참여했다. 그리고 유성구는 모이자 3개, 해보자 8개로 총 11개의 마을공동체가 참여했으며, 대덕구는 모이자 9개, 해보자 12개, 가꾸자 4개로 총 25개의 마을공동체가

참여했다. 2017년에는 대덕구에서 25개의 마을공동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매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표 4-13] 연도별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마을 공동체 수**

(단위: 개소, %)

| 년도 | 참여공동체(총계) | 모이자 | 해보자 | 가꾸자 |
|---|---|---|---|---|
| 2013 | 221 | 116 | 50 | 5 |
| 2014 | 147 | 103 | 40 | 4 |
| 2015 | 112 | 70 | 40 | 2 |
| 2016 | 85 | 30 | 51 | 4 |
| 2017 | 77(100.0) | 25(100.0) | 42(100.0) | 10(100.0) |
| 동구 | 12(15.6) | 3(12.0) | 7(16.7) | 2(20.0) |
| 중구 | 12(15.6) | 2(8.0) | 7(16.7) | 3(30.0) |
| 서구 | 17(22.1) | 8(32.0) | 8(19.0) | 1(10.0) |
| 유성구 | 11(14.3) | 3(12.0) | 8(19.0) | 0(0.0) |
| 대덕구 | 25(32.5) | 9(36.0) | 12(28.6) | 4(40.0) |

자료: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백서(각년도)』.

### 4) 대전시 작은도서관 현황

작은 도서관의 법적 개념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공립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작은도서관 진흥법』). 오늘날 작은도서관은 이러한 법적 개념을 넘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여 해결하고,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작은 도서관은 공유 문화 확산과 활성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6년 대전의 작은 도서관 수는 210개로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세종(27개), 울산(151개) 다음으로 적게 나타났다. 대전과 인구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작은 도서관의 수가 423개로 대전시 보다 약 2배 정도 많게 나타났다.

다만, 2016년 연앙인구 십만 명 당 도서관 수를 살펴보면, 대전은 14.0개로 광주 28.9개 다음으로 인구 대비 작은 도서관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전국 8대 특·광역시의 작은도서관 현황(2016년 말 기준)**

|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 도서관 수(개소) | 2,614 | 962 | 362 | 239 | 240 | 423 | **210** | 151 | 27 |
| 연앙 인구(천명) | 51,113 | 9,811 | 3,467 | 2,466 | 2,906 | 1,462 | **1,505** | 1,166 | 226 |
| 인구 십만명 당 도서관 수 | 5.1 | 9.8 | 10.4 | 9.7 | 8.3 | 28.9 | **14.0** | 12.9 | 11.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 "작은도서관 주요 통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16년 대전의 자치구별 작은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유성구가 67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구 48개, 서구 37개, 동구와 대덕구 각각 23개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연앙인구 십만명 당 작은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유성구가 19.8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구 19.1개, 대덕구 11.9개, 동구 9.8개, 서구 7.6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5] 자치구별 작은도서관 현황(2016년 말 기준)**

| 구분 | 계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
| 도서관 수(개소) | 210 | 23 | 48 | 37 | 67 | 23 |
| 연앙인구 | 1,505,374 | 234,576 | 251,736 | 487,807 | 337,939 | 193,318 |
| 인구 십만명 당 도서관 수 | 14.0 | 9.8 | 19.1 | 7.6 | 19.8 | 11.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 "작은도서관 주요 통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마지막으로 1관 당 방문자 수를 살펴보면, 대전시는 4,405명으로 광주 3,918명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치구별 1관 당 방문자 수는 유성구가

5,4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구 5,442명, 대덕구 3,981명, 중구 3,296명, 동구 2,54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6] 자치구별 작은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2016년 말 기준)**

| 구분 | 대전시 평균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
| 1관당 방문자 수 | 4,405 | 2,549 | 3,296 | 5,442 | 5,486 | 3,98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 "작은도서관 주요 통계"

### 5) 공유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현황

대전시는 2015년부터 시민 누구나 다양한 공유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인 '공유대전'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유대전은 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 는 인포메이션 기능과 시민 참여를 확산 시키는 참여 플랫폼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공유공간 현황 커뮤니티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다.

공유대전에서는 크게 공유대전 소개 및 공유 소식 전달, 공유활동단체 소개, 공간 공유 자원 및 인증공유 공간 소개, 공유관련 다양한 영상 및 문서 자료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첫째, '공유 대전 및 공유 소식 전달' 기능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쉽게 공유 대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대전, 공유경제, 공유대전의 다양한 사업들을 인포메이션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대전시의 공유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공유 관련 국내·외 소식과 언론/보도 자료 등을 제공해준다.

둘째, '공유활동단체 소개'는 공유 활성화 및 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용자가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공유활동단체를 보다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교육, 물건, 공간, 도서, 기타, 청년거점공간 6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018년 9월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유활동단체는 교육 2개, 물건 4개, 공간 4개, 도서 3개, 기타 4개이며, 청년거점공간 사업에는 2016년 2

개, 2017년 5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셋째, '공간 공유 자원 및 인증공유 공간 소개' 기능은 대전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학교, 민간 등을 대상으로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공유자원으로 발굴해 시민에게 제공해준다. 2018년 9월 현재까지 등록된 공간공유 자원은 195개이며, 인증공유에 등록된 자원은 17개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간공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자원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공유자료실'에서는 공유 관련 영상 및 문서 자료를 제공해준다. 2018년 9월 현재까지 영상자료는 6개, 문서자료는 8개의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다. 이처럼 대전시는 2015년부터 공유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공유문화 활성화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전시의 노력에도 현재 공유대전 홈페이지 운영관련 다양한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공유대전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공유소식의 경우 가장 최근 글이 2017년 11월 20일 글이며, 대전시의 다양한 공유사업 및 단체소식을 전달하는 글은 2016년 2월 1일 한 개의 글이 올라온 이후, 다른 글이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유활동단체 소개에 있어서도 공유사업 이후 생겨나는 다양한 공유단체에 대한 소개가 없고, 대부분의 자료들이 2015년 홈페이지 구축 당시 업로드 된 공유단체 정보들이다. 공유자료실 또한 2015년 이후 새로운 자료들이 전혀 업로드 되고 있지 않아 홈페이지 방문자들은 새로운 대전시 공유 사업 정보나 공유 결과물들을 제공받을 수 없다. 서울이나 광주 공유 홈페이지가 지속적으로 공유 사업이나 공유자원 관련 정보를 시시각각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공유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반면, 대전시의 홈페이지는 구축이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서울시나 광주시는 공간이외에 공유기업, 공구 등 다양한 공유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공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나, 공유대전 홈페이지에서는 공유활동단체나 공간공유자원만을 소개하고 있어 대전시 내 다양한 공유자원에 대한 정보획득

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공유대전 홈페이지는 간단한 맵핑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구별 공간공유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하였으나, 서울시나 광주시처럼 한눈에 지역의 공유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맵핑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서울시와 광주시는 단순히 공유 자원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유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화시대 속에서 공유 관련 온라인 플랫폼은 시민들이 공유문화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현재 서울, 광주, 부산 등 다양한 시도에서 공유 도시 구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시 또한 2015년부터 공유 대전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의 경우 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이후,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향후 공유 도시 대전을 위해서는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정상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광주시처럼 공유 대전 관련 앱을 개발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6)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현황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기록물이 생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물들을 관리 및 보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은 단순 공유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물들을 주민들이 직접 찾아봄으로써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 또한 나타날 수 있다.

현재까지 대전시의 기록물 관리는 지자체 별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물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기록물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기록원' 설립 부지를 선정한 후, 건축에 나서고 있으며, 경상남도 또한 '경남기록원'의 세부적인 설립과정에 있다. 이에 반해, 대전시는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ㅇ[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부지 선정이나 설립(안)은 부제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향후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존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물들이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기록원'과 같은 기록물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 '대전기록원'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물들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가시킬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전기록원'은 단순 기록물을 관리·보전하는 공간 이상으로 종합적인 지식 공유 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물들을 매개로 시민들은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방 기록물의 공유 및 지식 공유,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의 다양한 기록물들을 종합 관리하는 대전형 기록물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2. 공유 자원 현황

대전시의 공유자원이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나누어 쓸 수 있는 사용가능한 모든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유자원의 종류는 형태에 따라 크게 물적 자원, 인적자원, 공간자원 등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 1) 대전시 물적 공유자원 현황

대전시는 서울시나 광주시처럼 물적 자원의 공유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서울시나 광주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구나 장난감, 자전거 등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것에 반해 대전시는 아직까지 지역 내 다양한 물적 공유자원에 대한 DB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앱을 통해 다양한 공유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 스스로가 공유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현재 대전시는 시민들 스스로가 물건을 공유하는 공유문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대전시 물적자원의 공유는 주로 스타트업이나

시주도 사업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전시의 물적 자원 공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차량 공유 스타트 업 기업 피플카의 사례와 대전시 공유 자전거 타슈가 있다.

### (1) 차량 공유 사례 : 피플카

피플카는 2013년 대전 서구 탄방동에 설립된 스타트 업 기업으로 2018년 현재 쏘카와 그린카에 이어 카쉐어링 업계 3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플카는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자신 주변에 있는 공유 차량을 확인하고,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카쉐어링 서비스는 피플존이라 불리는 주차장에서 이뤄진다. 그리고 피플카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는 이용자들이 피플존을 보다 편리하게 찾고, 피플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림 4-1] 편리한 피플카 이용을 위한 시각화된 정보 제공**

자료: 피플카 홈페이지. "https://www.peoplecar.co.kr."

대전 지역 내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플존(주차장)의 개수는 7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차장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대전지역 내 피플존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피플카가 대전시에 시작된 기업이고, 이용객과 인지도 역시 대전시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피플존의 개수를 살펴보면 서구가 28개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 21개, 동구 17개, 중구 4개, 대덕구 3개 순이다. 서구와 유성구에 대전시 전체 피플존의 67.1%(49개)가 설치된 것에 반해, 중구와 대덕구에는 전체의 9.6%(7개)의 피플존만 설치되어 있다.

**[표 4-17] 자치구별 피플존 설치 개수**

| 전체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
| 73(100.0) | 17(23.3) | 4(5.5) | 28(38.4) | 21(28.8) | 3(4.1) |

자료: 피플카 홈페이지. "https://www.peoplecar.co.kr."

이러한 피플카의 사례는 공유도시 대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우선, 피플카는 대전시에서 유일무이한 공유 자원을 활용해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이다. 피플카의 매출액은 2014년 5억 9백만원에서 2017년 23억 6천 7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4] 이러한 공유자원을 통한 성공사례는 향후 새로운 모델 개발에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다음으로 피플카는 시각화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대전시 또한 물적 공유자원 DB를 구축하고, DB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때 시각화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공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유 자원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활용하여 공유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플카의 사례처럼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 폰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 텍스트 정보가 아닌 시각화 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자신 주변의 공유 자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GPS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유자원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체계 또한 구축해야 한다.

### (2) 공유자전거 : 타슈

타슈는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용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자전거 스테이션(Station)에 방문하여 키오스크

24) 매출액은 2014년 5억 8백만원, 2015년 8억 4천 3백만원, 2016년 11억 9천만원, 2017년 23억 6천 7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의 폭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사람인 홈페이지. "http://www.saramin.co.kr").

(무인 대여·반납 장치)에서 교통카드(T-Money),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결제 후 타슈 이용이 가능하다. 타슈의 대여는 05시에서 24시까지 가능하며, 1시와 4시 사이에는 반납만 가능하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타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사용자는 앱을 통해 편리하게 주변의 스테이션 정보 및 거치된 자전거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타슈는 대전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구매하지 않고, 적은 비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전 지역 내 타슈 스테이션은 총 261개가 설치되어 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유성구가 75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서구 73개, 중구 39개, 대덕구 38개, 동구 36개 순이다. 유성구와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의 약 56.7%의 스테이션이 집중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역 간 타슈 이용 환경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4-18] 자치구별 타슈 스테이션 설치 개수**

| 전체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
| 261(100.0) | 36(13.8) | 39(14.9) | 73(28.0) | 75(28.7) | 38(14.6) |

자료: 타슈 홈페이지. "http://www.tashu.or.kr"

### 2) 대전시 인적 공유자원 현황

대전시에 인적 공유 자원의 구체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전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책'을 통해 주민 간 지식 공유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람책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상호 신뢰와 상호호혜성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내 사회자본의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대전시의 대표적인 '사람책'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실시한 '人 THE BOOk'이 있다. '人 THE BOOk'에는 사전에 신청한 사람책들이 다양한 주제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한다.

2016년에 2회에 걸쳐 '人 THE BOOk'에 총 202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2017년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人 THE BOOk'에 참여했다. '人 THE BOOk'이외 최근에는 지역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도 사람책을 활용한 다양한 지식 공유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대전 서구 갈마·가수원·둔산 도서관 에서는 사람책 도서관을 매월 1회 이상의 휴먼북을 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대전사람책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사람책을 초청해 무료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전시는 다양한 기관에서 인적 공유자원을 활용한 지식 공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신뢰를 높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람책은 단순한 경험의 공유 이상으로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참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표 4-19] 대전광역시 인적 공유자원 : 사람책**

| 기관명 | 프로그램 명 | 내용 |
|---|---|---|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 人 THE BOOk | -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공동체, 환경보호, 지역사회 문제, 청년 문제, 대안적 삶 등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고 이야기 함 |
| 대전 서구 도서관 | 사람책도서관 |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재능기부 및 정보 제공(ex. 기타 강의, 여행 전문가의 여행 tip 등)<br>- 지역사회문제에 해결을 위한 지식 공유(ex. 대전 마을 청년 이야기 등) |
|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 대전사람책도서관 | -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한 참여자들의 인문사회적 소양 증진과 새로운 지식 획득에 초점을 맞춤(ex. 영화로 세상 읽기, 인생극장, 행복 디자인 등) |

### 3) 대전시 공간 공유자원 현황

대전시 공간 공유자원은 다양한 공유자원들 중 유일하게 DB화가 완료된 자원으로 공간 공유자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 누구나 '공유 대전'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다양한 공간 공유자원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의 공간 공유자원은 총 209개이다. 자치구별로 공간 공유 자원을 살펴보면, 중구가 6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성구 45개, 서구 42개, 동구 37개, 대덕구 25개 순이다.

**[표 4-20] 자치구별 공간 공유자원 현황**

| 전체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
| 209(100.0) | 37(17.7) | 60(28.7) | 42(20.1) | 45(21.5) | 25(12.0) |

자료: 공유대전 홈페이지. "http://daejeonshare.kr"

공간의 유형별 공간공유자원을 살펴보면 회의실이 49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다목적 46개, 학습실 25개, 체육시설 17개, 기타 17개, 문화/공연 15개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공간의 유형을 살펴보면 동구는 회의실과 다목적실이 각각 2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중구는 회의실이 31.7%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서구는 다목적실이 31.0%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는 학습실이 22.2%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대덕구는 다목적실이 24.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지역별 공간 유형의 특징은 중구는 전체 자치구 중 공간 공유자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체육시설 유형의 공간 공유자원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성구의 경우 학습실과 체육시설 유형의 공간 공유 자원이 전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공간 공유자원의 유형별 현황**

| 구분 | 전체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
| 계 | 209<br>(100.0) | 37<br>(100.0) | 60<br>(100.0) | 42<br>(100.0) | 45<br>(100.0) | 25<br>(100.0) |
| 회의실 | 49<br>(23.4) | 9<br>(24.3) | 19<br>(31.7) | 9<br>(21.4) | 9<br>(20.0) | 3<br>(12.0) |
| 다목적 | 46<br>(22.0) | 9<br>(24.3) | 10<br>(16.7) | 13<br>(31.0) | 8<br>(17.8) | 6<br>(24.0) |
| 학습실 | 25<br>(12.0) | 1<br>(2.7) | 7<br>(11.7) | 3<br>(7.1) | 10<br>(22.2) | 4<br>(16.0) |
| 체육시설 | 17<br>(8.1) | 4<br>(10.8) | 0<br>(0.0) | 3<br>(7.1) | 7<br>(15.6) | 3<br>(12.0) |
| 문화/공연 | 15<br>(7.2) | 4<br>(10.8) | 4<br>(6.7) | 5<br>(11.9) | 1<br>(2.2) | 1<br>(4.0) |
| 전시 | 10<br>(4.8) | 2<br>(5.4) | 3<br>(5.0) | 1<br>(2.4) | 2<br>(4.4) | 2<br>(8.0) |
| 동아리실 | 3<br>(1.4) | 2<br>(5.4) | 1<br>(1.7) | 0<br>(0.0) | 0<br>(0.0) | 0<br>(0.0) |
| 연습실 | 1<br>(0.5) | 0<br>(0.0) | 1<br>(1.7) | 0<br>(0.0) | 0<br>(0.0) | 0<br>(0.0) |
| 기타 | 19<br>(9.1) | 2<br>(5.4) | 4<br>(6.7) | 6<br>(14.3) | 4<br>(8.9) | 3(12.0) |
| 미분류 | 24<br>(11.5) | 4<br>(10.8) | 11<br>(18.3) | 2<br>(4.8) | 4<br>(8.9) | 3<br>(12.0) |

주: 공간 유형 분류에 있어 '전체'로 표시된 기관은 미분류 처리함
자료: 공유대전 홈페이지. "http://daejeonshare.kr"

전체 공유 공간 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은 117개(56.0%)로 유료 공유공간(소정의 이용료를 지급한 후 이용가능한 공간) 79개(37.8%) 보다 많았다. 다만, 유료 공유공간이라 할지라도 이용료가 시설유지보수비정도만 포함되어 있어, 다른 공간을 대여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지역별 공유 공간의 이용료를 살펴보면 동구 유료 13개(35.1%), 무료 24개(64.9%), 중구 유료 18개(30.0%), 무료 36개(60.0%), 서구 유료 18개(42.9%), 무료 21개(50.0%), 유성구 유료 16개(35.6%), 무료 25개(55.6%), 대덕구 유료 14개(56.0%), 무료 10개(40.0%)로 나타났다. 대덕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무료 공유공간의 비율이 50.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22] 이용료의 유/무료별 공간 공유자원 현황**

| 구분 | 전체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
| 계 | 209<br>(100.0) | 37<br>(100.0) | 60<br>(100.0) | 42<br>(100.0) | 45<br>(100.0) | 25<br>(100.0) |
| 유료 | 117<br>(56.0) | 13<br>(35.1) | 18<br>(30.0) | 18<br>(42.9) | 16<br>(35.6) | 14<br>(56.0) |
| 무료 | 79<br>(37.8.0) | 24<br>(64.9) | 36<br>(60.0) | 21<br>(50.0) | 25<br>(55.6) | 10<br>(40.0) |
| 미분류 | 13<br>(6.2) | 0<br>(0.0) | 6<br>(10.0) | 3<br>(7.1) | 4<br>(8.9) | 1<br>(4.0) |

주: 공간 유형 분류에 있어 '전체'로 표시된 기관은 미분류 처리함
자료: 공유대전 홈페이지. "http://daejeonshare.kr"

이처럼 대전시에는 다양한 유형의 공간 공유자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공유대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 지역에 있는 공유 자원을 확인하고 안내된 이용방법에 따라 공유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공유공간의 위치, 이용 방법, 이용료, 유형 등 공유공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는 하나, 위치 기반 서비스와 연계한 GPS 시스템 등이 지원되고 있지 않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확인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치 기반 서비스와 연계해 자신 주변의 공간 공유 자원을 확인하고, 이를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GPS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공유 공간 정보 전달을 위한 스마트 폰 앱을 개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 4) 대전시 지역화폐 현황

지역화폐는 지역의 협력적 소비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 경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전시는 시차원에서 운영되는 지역화폐는 없으나, 민간차원에서는 이미 한밭레츠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운동이 있었다. 한밭레츠는 '품앗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공유문화와 '두루'라는 지역화폐를 결합하여,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20017년 기준으로 한밭레츠의 전체 회원 수는 670가구로 총 8070여 건의 거래량이 발생했으며, 약 2억 4천

만원 정도의 거래액을 보였다. 두루를 이용하여, 먹거리부터 옷, 농산품 등 다양한 물품이 거래가 가능하며, 물품이외에 회원 간의 노동력도 두루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화폐 두루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주민들 간 상호신뢰를 매개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한된 지리적 영역에서만 통요되는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순환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비용 절감을 통한 환경 친화적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한밭레츠 '두루'이외 최근에는 어은동의 '꿀'과 석교동의 '벗' 등 다양한 지역화폐가 나타나고 있다. 어은동의 '꿀'은 마을에서 얻은 수익을 마을로 환원시키자는 취지로 탄생한 지역화폐이다. 꿀은 1,000원, 5,000원, 10,000원권 총 3가지 형태가 있으며, 월1회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열리는 중고시장 로열젤리 마켓에서 지급된다. 꿀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비스토어의 다양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석교동의 '벗'은 석교마을N사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만든 지역화폐이다. 벗은 30곳의 공동체 가게를 중심으로 2천만 원의 이용권이 2달 유통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환전소 없이도 지역 내 화폐가 스스로 돌게 되고, 지역화폐 벗을 이용해 물건을 교환하게 되었다. 이처럼 어은동과 석교동 또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주민들 간 상호 신뢰를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순환형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러한 지역화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 지역화폐아카데미 사업과 지역화폐시범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지역화폐아카데미 사업에서는 지역화폐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화폐에 대해 배우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지역화폐시범 조성사업에서는 '서클', '에듀베리 랩', 'peto 사회적 협동조합'을 시범단체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 화폐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았다.

# 3절 대전시 공유사업

## 1. 대전시 공유사업의 일반현황

대전광역시의 공유사업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이하 사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사자센터는 2013년 10월 개소된 이래 대전광역시 시민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역 사회 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 공유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공유 사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5년 공유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온라인 공유 플랫폼 구축, 공유네트워크 아카데미 운영, 공유 네트워크 공동체 지원, 공유네트워크 기획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유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유학교를 실시하는 한편, 공유 성과집을 발간하여 시민들과 공유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2016년에는 기본적인 공유 네트워크 조성사업 이외에 공유네트워크 아카데미 및 부대사업(공유 선진지 탐방, 대시민 공유나눔 컨퍼런스 등), 공유네트워크 공유기업/단체 지정사업 등을 실시했다. 2015년과 2016년 대전광역시 공유네트워크 사업의 유형별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서가 참여 6개, 지식참여 2개, 물건 공유 3개, 공간 공유 8개, 음식 공유 2개로 총 21개의 공동체가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했다. 2016년에는 서가 참여 1개, 물건 공유 2개, 공간 공유 3개, 음식 공유 1개, 공유 마음 1개로 총 8개의 공동체가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했다. 그리고 공유네트워크 사업의 예산은 2015년 2억 3,500만원, 2016년 1억 3,894만원이 집행되었다. 이처럼 2015년에 비해 2016년 공유네트워크 참여 단체 수가 사업비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4-23]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공유네트워크 사업 현황(2015~2016)**

| 년도 | 계 | 서가 참여 | 지식 참여 | 물건 공유 | 공간 공유 | 음식 공유 | 공유 마을 | 사업비 (천원) |
|---|---|---|---|---|---|---|---|---|
| 2015 | 21 | 6 | 2 | 3 | 8 | 2 | 0 | 235,000 |
| 2016 | 8 | 1 | 0 | 2 | 3 | 1 | 1 | 138,940 |
| 계 | 29 | 7 | 2 | 5 | 11 | 3 | 1 | 373,940 |

자료: 사회적자본지원세터(각년도). 『대전광역시 사회전자본지원센터 사업백서(각년도)』

## 2. 2017년도 대전시 공유사업[25)]

2017년에는 공유네트워크 사업 이외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지식 공유 사업 및 청년거점공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했다. 특히, 2017년 청년들이 사회혁신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술활동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거점 공간인 '청춘다락'을 개소했다. 이처럼 2017년에는 다양한 공유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어 총 2억 6,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2017년 대전시 공유사업은 크게 ① 공유경제 네트워크 사업, ② 공유 네트워크 및 지식 공유 사업, ③ 청년 거점공간 지원 사업, ④ 공유공간 네트워크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공유경제 네트워크 사업

공유경제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사회 내 공유경제 담론을 형성하여, 마을공동체 안에서 협력적 경제활동이 나타날 수 있는 '공유경제 네트워크'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7년 공유경제 네트워크 사업으로 '지역화폐아카데미 사업'과 '지역화폐시범 조성 사업'이 실시됐다.

#### (1) 지역화폐아카데미 사업

지역화폐는 지역의 협력적 소비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 경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7년 사자센터는 지역화폐의 담론을 형성하고, 지역 순환경제와 함께 마음 공동체 안에서 협력적 소비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화폐 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은 오픈 컨퍼런스로 진행하여, 지역화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었으며, 총 91명(사전 신청 40명, 현장 신청 51명)이 참여했다. 이러한 지역화폐아카데미 사업 진행에 있어 총 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25)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2018).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17 사업보고서』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ocialcapital.kr)를 참고하여 작성함

지역화폐아카데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네와 마을을 품는 지역화폐'라는 주제로 개최된 지역화폐 오픈 컨퍼런스는 '17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통화, 지여과폐운동 흐름의 성과와 한계 돌아보기', '지역화폐 운동 흐름의 성과와 한계 돌아보기', '지역화폐운동의 노하우와 생활권/동네 단위로 떠오른 마을 공동체의 교류 및 네트워크', '대전 내 지역화폐 담론 형성 및 지역 순환경제와 협력적 소비문화 활성화'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역화폐 오픈 컨퍼런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오늘 행사를 통해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이 늘었나요'라는 질문에 있어 긍정적인 응답(아주 많이 늘었다 + 많이 늘었다)이 77%로 나타나 참여자들의 행사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그리고 행사 중 만족했던 프로그램을 물어 본 결과 마포지역화폐 '모아', 한밭레츠 '두루', 시흥시 지역화폐, 구미 '사랑고리'와 같은 지역화폐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이야기해보는 '이야기 마당' 프로그램이 64.0%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화폐 오픈 컨퍼런스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지역사회 내 지역화폐 구축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향후에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역화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화폐 아카데미'사업이 필요하다.

**(2) 지역화폐시범 조성 사업**

지역화폐시범 조성사업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순환 경제와 협력적 소비의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3개 지역화폐 거점을 지정하고, 지정된 공동체에는 300만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7년 지역화폐시범 조성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서구의 '서클 공동체', 중구의 '스쿨 B', 중구의 'peto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지역화폐시범 조성사업의 단체별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서구의 서클 공동체의 경우 서클특성을 가진 풀잎화폐 사용으로 지역화폐 및 통합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중구 스쿨B는 '에듀베리 랩'을 운영하면서, 교육화폐를 활용한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 접근성 개선 및 교육적 자립구조 구축을 시험하고, 대전 중구 일대 및 대전 전 지역

에서 교육관련 단체 및 기업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화폐 유통의 현실성 검증 및 실현방안 등을 연구했다. peto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화폐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지역사회의 마을자원조사를 통한 지역화폐 현실화 방안 모색 등과 같은 사업을 진행했다. 이처럼 대전시는 지역화폐시범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역화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역화폐가 어떻게 활용되고, 육성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4-24] 2017년 대전시 지역화폐 시범 조성 사업**

| 단체명 | 자치구 | 사업지역 | 사업명 | 사업내용 |
|---|---|---|---|---|
| 서클 공동체 | 서구 | 탄방동 | 서클특성을 가진 풀잎 화폐 사업 | - 서클특성을 가진 풀잎화폐 사용으로 지역화폐 및 통합경제시스템 구축 |
| 스쿨B | 중구 | 문화동 | 에듀베리 랩 | - 교육화폐를 활용한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 접근성 개선 및 교육적 자립구조 구축 시험<br>- 대전 중구 일대 및 대전 전 지역에서 교육관련 단체 및 기업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화폐 유통의 현실성 검증 및 실현방안 연구 |
| peto 사회적 협동조합 | 중구 | 대흥동 | 지역화폐의 가능성 | -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마을자원조사를 통한 지역화폐 현실화 방안 고민 |

자료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socialcapital.kr".

### 2) 공유 네트워크 및 지식 공유 사업

공유 네트워크 및 지식공유 사업은 지역사회 내 공유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2017년 공유경제 네트워크 사업으로 '공유네트워크 공모사업'과 '지식공유 대시민 참여사업'이 실시됐다.

### (1) 공유네트워크 공모사업

공유네트워크 공유사업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는 공동체 및 단체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영역의 '공유 네트워크'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2017년 공유네트워크 사업은 6개 단체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2개 단체 1000만원를 지원해 총 5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공유네트워크 공모사업 선정 단체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서구의 '맘키움 공동육아커뮤니티'는 양육품앗이, 부모교육, 마인드레크레이션, 가족이웃 힐링캠프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배우는 인성교육의 장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공동육아 환경을 조성했다. 그리고 유성구의 '품앗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는 '공유공간 "품터' 이곳에서 마을 자치배우기!'라는 주제로 노은지역에 공유공간을 설립하고, 운영 추진위원을 모집하여 지역사회의 주민자치 환경을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의 '유어왓츄리드'에서는 공유서가 전람회를 실시하여, 공유서가의 책 그리고 책과 얽힌 공유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전람회를 실시했다. 이러한 다양한 공유네트워크 공모사업을 통해 대전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들이 공유문화에 참여하는 환경 및 공유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구축 했다.

### (2) 지식공유 대시민 참여사업

지식공유 대시민 참여사업은 각 구별의 이슈를 가지고 동네, 마을 단위의 사람책 구성을 통해 구별 마을넷 네트워크의 사회적자본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시행된 사업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마을 공유살롱', '청춘다락 개소식', '빅런치'가 시행됐다.

우선, 마을 공유살롱은 '마을살롱 人 the 마을'이라는 주제로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5회 실시되었으며, 각 구별 이슈에 관심 있는 대전 시민, 총 100명이 참여했다. 동구에서는 '마을과 다가가는 행정 : 진정한 주민밀착형 행정이란'을 주제로 2017년 8월 29일에 약 20명의 마을 주민이 참여해서 진행되었고, 대덕구는 '혁신행정 : 주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행정의 힘'을 주제로 2017년 8월 30일에 20명이 참여해 진행되었다. 그리고 서구

는 '마을 미디어 : 마을확성기'를 주제로 2017년 8월 31일에 진행되어 약 30명의 주민들이 참여했고, 중구는 '청소년교육 : 마을이 청소년을? NO! 청소년이 마을 키운다'는 주제로 2017년 8월 31일에 20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유성구에서는 '마을자산화 : 마을에 우리의 공간은 있는가'의 주제로 2017년 9월 1일 약 1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대전시는 이러한 마을살롱 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민 계층의 참여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나누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의제를 다양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공무원, 지원기관, 마을공동체 리더, 주민, 복지활동가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거버넌스와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어 마을공동체 주체가 다양화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표 4-25] 2017년 마을살롱 '人 the 마을' 사업 개요**

| 지역구 | 일시 | 참여자 수 | 주제 |
|---|---|---|---|
| 동구 | 17.8.29. | 20 | 마을과 다가가는 행정 - '진정한 주민밀착형 행정이란' |
| 대덕구 | 17.8.30. | 20 | 혁신행정 - '주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행정의 힘' |
| 서구 | 17.8.30. | 30 | 마을미디어 - '마을확성기' |
| 중구 | 17.8.31. | 20 | 청소년 교육 - '마을이 청년을? NO! 청소년이 마을을 키운다' |
| 유성구 | 17.9.1. | 10 | 마을자산화 - '마을에 우리의 공간은 있는가' |

자료: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2018).『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17 사업보고서』

다음으로, 대전시는 청년과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허브로써 '청춘다락'이라는 공간을 구성하여 2017년 9월 27일 개소식을 열었다. 청춘다락 개소식은 단순히 청춘다락을 소개하는 의례적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청춘다락의 역할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사람책, 톡투유, 길놀이,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다. 개소식에는 총 25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러한 청춘다락은 향후 대전시의 공유 네트워킹 또는 관계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재생과 공유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런치' 사업은 현대인의 주요 관심사이자 일상과 밀접한 먹거리를 매개로 같이 먹고 사는 것을 함께 고민 하고 마을공동체의 결속력과 사회적자본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먹거리에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빅런치 행사는 '주제가 있는 밥상(A섹션)', '마을에서 함께하는 밥상(B섹션)', '이야기 한 자락, 차 한 모금(C섹션)', '우리마을 포트럭파티(D섹션)' 총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섹션에는 대전시민과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참여했다. 빅런치 행사를 통해 대전시는 지역사회의 공통된 관심사인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결국 이러한 행사는 대전시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적자본을 축적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전시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여,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향후 공유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 3) 청년 거점공간 지원 사업

청년 거점공간 지원 사업은 청년과 마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간 거점 형성을 지원하고, 거점공간 형성의 핵심이 되는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청년 공동체 및 활동을 지원사업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는 동구의 '창작집단쟁이'와 '청년푸드트럭 협동조합', 서구의 '인터플레이', 중구의 '문과방'과 '아산아트 컴퍼니'가 청년 거점공간으로 선정되었다.

선정 단체별 세부적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동구의 '창작집단 쟁이'는 창작센터 세움을 구성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예술인 공동체 형성을 하고자 했으며, 세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고, 만드는 행사를 진행했다. '청년푸드트럭 협동조합'은 낙후된 인동시장에 청년푸드트럭 거점을 운영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

행했다. 그리고 서구의 '인터플레이'는 대전서구 청녀 거점 코워킹 사무실 '위드 오피스'를 만들어 공유공간 속에서 청년들이 활동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다. 중구의 '문과방'은 지속 가능한 예술 공동체 사업을 주제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 예술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중구의 '아산아트 컴퍼니'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청년 예술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직장인 극단 지원 등을 수행했다. 이처럼 대전시는 다양한 청년 거점공간을 공유공간 형식으로 구성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공유공간의 마련은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이 지역의 문제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표 4-26] 2017년 대전시 청년 거점공간 지원 사업**

| 단체명 | 자치구 | 사업지역 | 사업명 | 사업내용 |
|---|---|---|---|---|
| 창작집단 쟁이 | 동구 | 가오동 | 창작센터 세움 | 예술인들의 거점공간인 '창작센터 세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행사 기획 |
| 청년 푸드트럭 협동조합 | 동구 | 인동 | 청년거점 공간 지원사업 | 낙후된 인동시장에 청년푸드트럭 거점을 확보하여 청년창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
| 인터 플레이 | 서구 | 괴정동 | 위드 오피스 (청년거점 코워킹 사무실) | 공유공간 위드 오피스(서구 청년 거점 코워킹 사무실)을 통해 서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지원 |
| 문과방 | 중구 | 대흥동 | 지속가능한 예술 공동체 사업 | 다양한 예술 활동을 공유 할 수 있는 공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청년 예술공동체 형성 |
| 아산아트 컴퍼니 | 중구 | 대흥동 |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 청년 예술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워크숍 운영, 청년 유니브 연극제 진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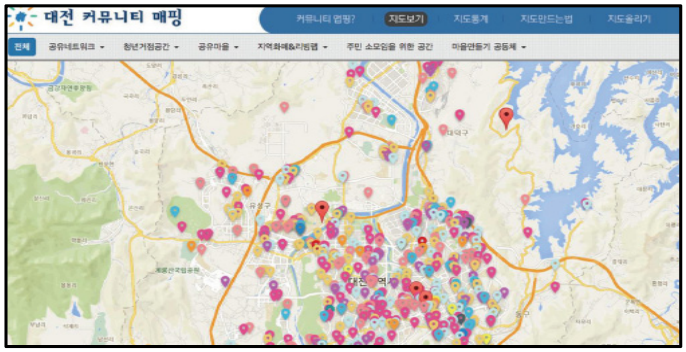
자료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socialcapital.kr".

### 4) 공유공간 네트워크 사업

공유공간 네트워크 사업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공유공간 네트워크 조성 사업'과 '공유활성화 마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 (1) 공유공간 네트워크 조성사업

공유공간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 내 시민 공유공간 및 유휴공간 매핑(maping)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2017년 공유공간 네트워크 사업은 크게 '대전 공유공간 현황 매핑 및 청년거점공간 컨텐츠 제작', '대전 청년거점 공간 네트워크 파티', '대전청년 거점공간 현판 제작'으로 진행됐다. '대전 공유공간 현황 매핑 및 청년거점 공간 컨텐츠 제작' 사업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공간을 이용하고, 지역의 공유공간을 알릴 수 있도록 웹사이트 메뉴 구조 변경 및 데이터 업로드 환경 구축과 청년거점 공간 웹 컨텐츠를 제작 등을 지원한 사업이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 커뮤니티매핑 홈페이지의 데이터 업로드 및 메뉴 구조를 변경하여, 신규 데이터를 추가했으며, 공유대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관련 정보를 업로드 했다. 그리고 사회적자본센터 홈페이지에는 대전 청년거점 공간 11개소를 업로드했고, 대전 청년 거점 공간 관련 웹 컨텐츠를 제작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대전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그림 4-2] 개선된 대전 커뮤니티 매핑 홈페이지**

다음으로, ‘대전 청년거점 공간 네트워크 파티’는 청년거점공간 운영자 간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거점공간에 있어 나타난 활동성과 및 어려움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사업 결과 청년거점공간 운영자들은 청년 공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례가 마련, 대전의 청년 공간이 20개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단체들끼리 연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 체계 구축, 청년공간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등과 정책이 대전시 청년 공유공간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청년거점공간 현판제작 사업은 대전청년거점공간에 대한 매핑을 기초로 각 공간의 현판을 제작하여 네트위킹과 대전시민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됐다. 사업결과 총 17개 단체의 현판이 제작됐다.

**[표 4-27] 2017년 대전시 공유공간 네트워크 조성사업**

| 구분 | 사업명 | 내용 |
|---|---|---|
| 웹사이트 메뉴구조 변경 및 데이터 업로드 | 대전 커뮤니티매핑 | - 지도보기 메뉴 탭구조 변경<br>- 지도보기 메뉴의 탭구조 변경에 따른 신규데이터 추가<br>- 주민 소모임을 위한 공간 DB업데이트 |
| | 공유대전 | - 공간공유 메뉴 추가 및 지식공유 메뉴 삭제<br>- 공간공유 메뉴에 DB 업로드<br>- 대전시 인증 공유공간 메뉴 현판 제작 희망 공간 DB업로드 |
| |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 - 대전 청년거점공간(11개소) 인터뷰 웹 컨텐츠 업로드 |
| 대전 청년거점공간 웹 컨텐츠 제작 | 대전 내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현황 조사 | - 사진, 자치구, 시설용도, 대상, 수용인원, 비치품목, 편의시설 등 공간 공유 DB 입력사항 제조사 |
| | 공유대전 ‘공간공유’ DB 재조사 | - 기존 업로드 데이터를 대전시에서 재조사하면 공유대전 사이트 업로드 진행 |
| | 현판제작 희망여부 조사 | - 조사단체 리스트는 ‘의뢰자’가 제공<br>- 전화로 희망여부를 체크하여 보고서 제출 |
| 대전 청년거점공간 웹 컨텐츠 제작 | 대전 청년거점공간 인터뷰 및 욕구조사 | - 사진 및 공간 촬영 사전동의, 질문지 상 인터뷰 진행<br>- 인터뷰 질문지 : 거점공간 탄생비화, 위치적 특징, 미래의 모습 등 질문은 자유롭게 진행 |
| 대전 청년거점공간 네트워크 파티 | 네트워크 파티 진행 | - 대전 청년거점공간 네트워킹 진행<br>- 대전 청년거점공간 성과 공유<br>- 대전 청년거점공간 애로사항 공유<br>- 대전 청년거점공간 정책 제안사항 청취 |

자료: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2018).『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17 사업보고서』

### (2) 공유 활성화 마을 지원사업

공유 활성화 마을 지원사업은 마을 공동체 및 지역 네트워크 역량을 가진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공유 플랫폼 형성과 참여형 생활실험실(리빙랩)을 통해 창조적 지역문제해결 중심 공동체의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2017년에는 기존 마을 1개(2,000만원)와 신규마을 1개(3,000만원)가 선정되어 총 5,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유성구의 '청년고리'는 '일상이 공유! 공유 커뮤니티 라이프 공유마을! 안녕, 비파크'라는 주제로 네트워킹 사업, 마을가게 브랜딩 사업, 대안화폐 사업, 커뮤니티 라이프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중구의 석교마을(N) 사람사회적협동조합은 '공유와 협력의 마을순환경제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주제로 주민의 자발적 협력으로 마을의 자산을 공유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를 연계하여 주민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고, 마을 내에서 돈과 자원을 순환시키는 마을순환경제 시스템의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다. 이러한 공유 활성화 마을 지원 사업은 대전시의 성공적 공유 마을 모델을 발굴하고, 나아가 대전시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4-28] 2017년 대전시 청년 거점공간 지원 사업**

| 단체명 | 자치구 (사업지역) | 사업명 | 사업내용 |
|---|---|---|---|
| 청년고리 | 유성구 (어은동) | 일상이 공유! 공유 커뮤니티 라이프 공유마을! 안녕, 비파크 | - 네트워킹 사업, 마을가게 브랜딩 사업, 대안화폐 사업, 커뮤니티 라이프 홍보 |
| 석교마을엔(N) 사람사회적 협동조합 | 중구 (석교동) | 공유와 협력의 마을순환경제 네트워크 구성 | - 주민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마을의 자산을 공유<br>- 지역 순환형 경제체계 구축<br>- 마을 내에서 돈과 자원을 순환시키는 마을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

자료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socialcapital.kr".

# 4절 공유도시 대전 SWOT 분석

## 1. 공유도시 대전의 강점(Strength)

첫째, 공유도시 대전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은 마을활성화 사업과 공유사업 간 시너지 효과로 공유 사업을 통한 마을 재생, 지역 공동체 형성, 공유네트워크 활성화 효과가 높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현재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공유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두 사업 간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다. 마을 만들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 자원의 공유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지역 주민들의 공유 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가져오고 있다.

둘째, 대전시는 인더북, 공유활성화 마을 지원사업, 지역화폐 아카데미, 먹거리 공유 등과 같은 다양한 공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공유 사업 실시를 통해 청년, 주부 등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공 있다. 이러한 환경조성은 공유 문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대전시는 청년거점공간는 등 다양한 공유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역의 유휴 공간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춘다락'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여 청년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넷째, 대전시는 퍼플카와 같은 공유자원을 활용한 성공모델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이를 활용한 대전형 공유기업을 발굴할 수 있다. 현재 대전시 공유사업은 공유 네트워크와 공유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향후 보다 지속가능한 공유 사업과 순환형 경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밀착형 공유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처럼 대전시는 사회적자본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유사업을 실시하여,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갖는다.

## 2. 공유도시 대전의 약점(Weakness)

첫째, 대전시는 사회적자본센터를 중심으로 공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유기본계획의 부재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공유기본계획의 부재로 인해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공유 사업을 발굴하고, 각 자치구에 적합한 맞춤형 공유정책 개발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고 공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대전시민들의 공유 문화에 대한 이해나 인식 등을 조사하고, 이에 맞는 단계적 공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대전시에서는 단계적 공유사업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한, 대전시의 현단계에 대한 진단이나, 시차원에서 미래 공유도시 대전에 대한 비전이나 목적 제시 등도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대전시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유 네트워크 이외 종합적인 공유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유 도시 대전에 맞는 미래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시나 광주시에 비해 대전시는 공유자원에 대한 DB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공유 공간을 중심으로 DB화가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 다양한 지역 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공유자원에 대한 DB화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지역의 다양한 공유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DB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전시는 시민들의 지역의 공유자원을 이용하고, 공유 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실질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 대전시 공유관련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에 분산되어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공유 공간에 대한 정보는 공유대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매핑 서비스는 커뮤니티 매핑 홈페이지, 청년거점공간 정보는 사회적자본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광주시처럼 '공유 대전'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이외에 스마트 폰 앱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정보 제공 통로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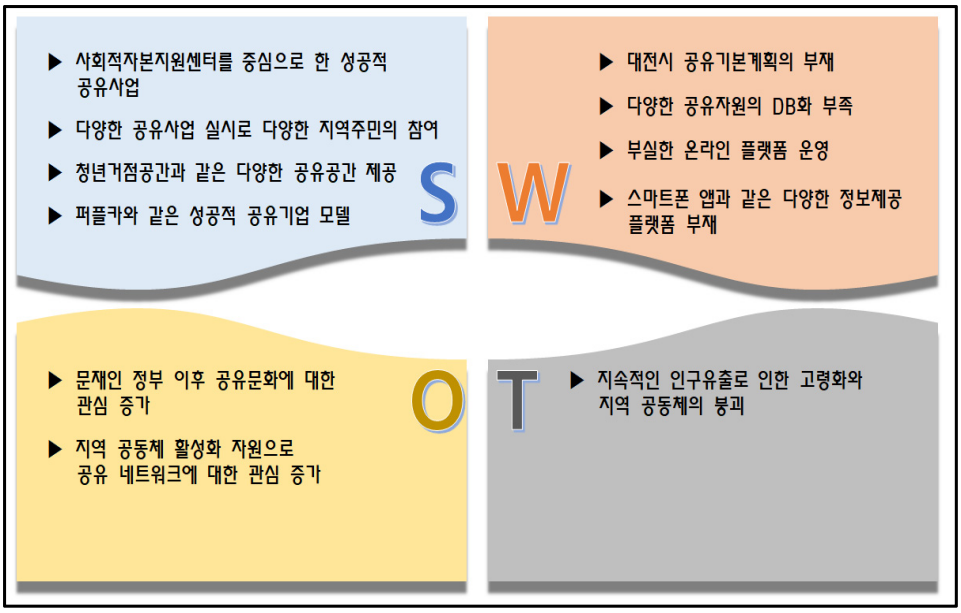
## 3. 공유도시 대전의 기회요인(Opportunity)

첫째, 공유는 전 세계적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공유 자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 또한 공유자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다양한 공유자원을 활용한 공유 네트워크나 공유 공동체가 구축되기 좋은 환경이다.

둘째,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자원으로 공유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공유는 단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공유가 갖고 있는 상호 신뢰와 상호호혜성의 법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러한 공유를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오늘날 쇠퇴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다양한 공유 정책 개발과 공유네트워크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공유도시 대전의 위협요인(Threat)

공유 도시 대전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대전시 인구의 감소이다. 대전시는 현재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연령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한편, 지역에 따라 지역 공동체 붕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오랜 시간 지역주민들 간 맺어온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형성된 지역의 상호신뢰성과 상호호혜성은 공유 네트워크 형성 및 공유 문화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전시 인구유출로 인해 이런 공동체들이 붕괴하고 있어, 미래 공유 도시 대전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지역 사회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4-3] 공유도시 대전 SWOT분석

DSI

# 공유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요구 분석

1절 조사 및 분석방법

2절 인터뷰 분석결과

3절 조사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 5장

# 5장 공유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요구분석

## 1절 조사 및 분석방법

### 1. 조사방법

대전시 공유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마을활동가 및 공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를 위한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했던 마을활동가와 지원기관인 사회적자본센터 종사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선정 이유는 이들이 연구목적인 대전 공유네트워크 실태 및 발전방안 탐색에 있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정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집단인터뷰가 2018년 07월 20일 진행되었다. 집단 인터뷰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인터뷰 진행자가 인터뷰를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질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책임연구원이 맡아 진행하였으며, 총 인터뷰 진행시간은 2시간 이었다. 인터뷰의 주요 질문은 [표 5-2]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5-1] 참여자 현황**

| 대상자 | 참여자 소속 | 성별 | 나이 |
|---|---|---|---|
| A | 공유네트워크 사업 참여단체 대표 | 여 | 28 |
| B | 공유네트워크 사업 참여단체 대표 | 남 | 34 |
| C | 공유네트워크 사업 참여단체 대표 | 남 | 32 |
| D | 공유네트워크 사업 참여단체 대표 | 여 | 35 |
| E | 공유네트워크 사업 참여단체 대표 | 여 | 38 |
| F |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단체 대표 | 여 | 42 |

| | | | |
|---|---|---|---|
| G |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단체 대표 | 여 | 41 |
| H | 중간지원기관 | 남 | 38 |
| I | 중간지원기관 | 남 | 34 |
| J | 중간지원기관 | 남 | 35 |

##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인터뷰 내용 전체를 필사해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작성된 녹취록을 연구자가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주제들을 주요 개념들로 정리한 후 분석하였다.

**[표 5-2] 집단 인터뷰 질문 내용**

| |
|---|
| 1. 공유 사업 인지정도 |
| ○ 공유경제, 공유자원에 대한 이해정도<br>○ 공유 경험 |
| 2. 공유 현황과 어려운 점 |
| ○ 현장에서 느끼는 공유 사업 운영 상황 및 애로점<br>○ 현재 대전시 공유활성화 사업 및 지원제도에 있어 불만, 개선 요구사항 |
| 3.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 ○ 공유 활성화를 위한 요건<br>○ 공유 활성화 정책방향<br>○ 역량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
| 4.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요구 |
| ○ 향후 대전시 공유네트워크의 자생력 촉진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안<br>○ 중장기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법적 근거, 조례 개정 등)<br>○ 효율적인 지역 자원 활용,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역문제의 해결과 공유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br>○ 지방정부, 중간지원조직, 지역주민 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

# 2절 인터뷰 분석결과

## 1. 공유에 대한 인식

### 1) 공유경제 이해 정도

먼저, 공유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얼핏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아카데미를 통하여 개념정도 이해에 그치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나아가 개념적 이해에 그치고 있으나 이를 현실에 적용할 정도의 이해는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 교육강좌를 몇 개 들은 적이 있고, 이후 따로 약간의 학습 경험이 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유경제 아카데미와 탐방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활동 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A)

“ 강연도 듣고 탐방도 가 보았는데 실제 공유경제를 경험해보지 못하여 자세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편이다. 더더욱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들어보았지만 직접 설명이 어려운 점이 있다.”(B)

“ 공유경제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적용에는 아직 문외한인 것 같다. 실제 경험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다.”(F)

### 2) 공유 경험 형태에 대한 이해

공유경제 개념의 난해함을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인터뷰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바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다양한 공유경험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참여자들

의 대부분은 이미 자녀교육에 있어 재능나눔, 도서나눔, 학용품 나눔의 경험을 말하고 있거나, 도서관, 노인정, 마을회관 등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주변의 공간을 공유했던 경험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좀더 나아가 일상생활 중에서 사용되는 지식과 경험의 공유 등과 같이 관심사에 다른 공유가 일어남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유경험 중심으로 공유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유경험이 존재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유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집에서 쓰지 않은 물건, 아이 키우는 엄마에게 주는 일이 다반사다. 이것이 공유라면 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아파트 내 벼룩시장에서 사고, 팔고 남은 것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거나 부녀회를 통하여 식기류도 공유하고 있다.”(D)

“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에 재능기부 활동을 한 적이 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바느질이나 구연동화, 천연화장품 등을 만드는 일을 배웠고 이를 다시 돌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F)

“ 요즘에는 SNS를 통해 단체방에서 정보를 얻고, 나 또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도 공유라고 할 수 있다면 이미 생활가운데 많은 사람이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공유경제는 모르겠으나 공유생활과 공유활동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J)

### 3) 공유 자원에 대한 이해

공유 자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공유 자원이 될 만한 것에 대한 언급에서 압도적으로 장소에 대한 고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지식정보, 재능기술, 물건 등의 범주가 제시되었다. 장소에 있어서는 목적과 필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요구나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잉여공간, 기존 공간에 새로운 용도를 추가하여 공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유 할 수 있는 자원 중 가장 보편적이고 용이한 것이 장소라고 판단된다. 각종 공동체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마을 북카페 등 일상적으로 모여서 취미활동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시급하다. 나아가 포럼 등을 통하여 의견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A)

“ 아파트 내 공동 육아방이나 아이들 방과 후 문화 놀이공간 등을 공유하는 것이 공유활동에 중요한 것으로 본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 놀이 공간도 제공해주었으면 한다.”(E)

“ 대전의 경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대전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 도서관이나, 어른의 언론을 아래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 공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부모세대도 교육 트랜드의 빠른 변화로 인해 부모들이 공유할 수 있는 SNS 등 새로운 공유수단이 필요하다.”(C)

“ 잉여공간도 찾아보면 많지 않을까. 주변에서 방치되고 있는 오래된 빈집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된다. 부족한 주차장 공유 문제도 공간 공유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H)

## 2. 공유 사업에 대한 평가

### 1) 공유의 장애 및 효과

대전시가 공유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과 사회적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이 동시에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공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서는 나누는 기쁨이나 소비행태의 변화, 확산 등과 같은 사회적 효과가 제시되었으며, 공유의 장애요인으로는 관계에 따른 장애, 문건과 관련된 장애, 공유 효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 등이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 과거에도 그렇지만 함께 나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한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줄 수 있다는 여유도 나누는 기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것이 모여져 소비 행태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서로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C)

“ 공유활동은 기본적으로 취지상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누고 싶으나 누군가의 허락이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주변의 신뢰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서로간의 공유도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먼저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G)

“ 물건을 공유한다고 생각해보자.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향후 사용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경우 쉽게 물건을 공유하기 곤란하지는 않을까. 물건이 망가지거나 잃어버릴까 불안함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전적으로 있지 않을까 한다.”(I)

“ 절실한 수요자를 만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또한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일까부터 생각하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것이 우려되는 입장에서 중간에 이를 매개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충분히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다.”(B)

### 2) 공유활성화 사업 수행시 애로점

그렇다면 직접 공유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았다. 우선, 공유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자율성이 부족하다, 절차가 복잡하다, 공유경제 및 공유네트워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하다, 지나치게 사업의 단기적 성과를 강조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 대전시가 공동체 사업일환으로 공유네트워크 사업이 많아져서 활성화 되어가기는 하지만, 사업운용에 있어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영역에서 확산되어야 함을 생각할 때 보다 간소화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나 문의사항 등 시민들이 행정역영의 일을 소화해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차곡차곡 만들어 간다면 좋을 것 같다."(A)

" 공유관련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보니깐, 공유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 수가 없ek. 대전은 조례가 전국 유일하게 있기는 하지만 초기 단계라 맞춤형 지원도 어려운 실정이다." (C)

" 행정이라는 게 딱 중심을 잡아줘서 육성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현재 공유 활성화사업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 행자부 지침도 매년 오락가락하고, 관련법도 없으니깐 뭐가 되겠어? 행자부도 처음 시행지침에서는 공유사업의 공동체성을 강조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바뀌었잖아." (B)

" '공유' 라는 좋은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영을 대표자, 담당자 외에 필요한 인력들을 쓸 때 자원자를 활용해야 하다 보니 전문적인 역량의 한계가 있거나, 더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면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진다." (H)

” 공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 공유 개념에 대한 인식 같다. 공유경제가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D)

” 공유네트워크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유경제, 공유문화, 공유네트워크 등 일반 시민들이 개념을 이해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또한 사업 자체가 시민참여형 사업이다 보니 홍보와 판촉 마케팅 과정이 찾기가 어렵다. 인터넷 기반의 공유네트워크 사업이다 보니 홍보를 통해 사이트 접속자를 늘리는 것이 어려운 점이었다.“ (E)

“ 공유 사업이 시행되었던 초기만 하더라도, 지역성과 공동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등장했다고 본다. 근데 지금은 공동체 사업과 공유네트워크 사업이 큰 차이가 없다. 이제 공유네트워크 사업도 지역성이나 공동체성보다는 공동체 활성화의 보조적인 성격이 가장 중요하고, 본래적 의미의 공유 활성화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요즘 공유네트워크 사업은 그냥 공동체 사업의 아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I)

### 3) 개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의 이해도가 아직 개념 정도의 파악에 그치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애로점이 많기는 하나, 개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나 확산 추진에 대한 의지와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셰어하우스나, 공간공유, 서적공유, 청소년 문화공간 공유, 육아용품공유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추진과정상 재정문제 등 한편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으나 성과면에서 신뢰형성, 공동체성 증진 등 보이지 않는 성과들이 있었다는 공통된 대답이었다.

“ 셰어하우스의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다. 지역에 많이 알려져서 좋고, 감사하다.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솔직히

난감한 상황도 없지 않지만, 덕분에 주변에 많이 알려졌다.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언론에서 만든 영상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 점도 편했다."(A)

" 공간공유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다. 사업을 지속하려면 그 공간을 통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유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유하는데 왜 돈을 내야 하냐고 한다. 공간공유 사업을 하는 다른 단체들도 이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 같다."(C)

" 육아용품 공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다. 우리는 어린 아기가 있거나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대부분이다. 나도 일하고 아이 키우고 도서관 일도 하면서 공유네트워크 사업을 담당했다. 그러다보니 계획에 맞춰서 착착 진행을 못했다. 누가 이 일을 전담해서 하나,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문제다. 이제까지는 공유가 뭔지 개념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D)

" 미디어쉐어링 사업모델은 에어비앤비를 미디어분야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장비부분에서는 성과가 없었다. 고가 장비를 대여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증시스템이 없었다. 또 우리는 수수료를 받는데 무료로 빌려주는 기관이 있더라. 그래서 재능기부로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바꾸니까 성과가 났다."(B)

" 개인적으로 전공서적 나눔 책장을 열고나서, 이후에 공유사업에 합류했다. 대학전공서적을 반값으로 중개하는 일이 주 사업인데, 학기 초가 지나면 한가해진다. 그래서 공간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했다. 벼룩시장이나 강좌도 하면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학생들은 호응이 좋지만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기에는 아직 힘든 부분이 있다." (A)

" 청소년문화공간을 만들면서 공간 공유와 재능공유 두 부분에 집중했다. 재능공유는 진로코칭을 하면서 잘 진행했는데, 공간공유는 좀 부족했다. 뭔

가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려고 했지만, 홍보가 어렵더라. 코칭을 2년 정도 진행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뒤늦게 참여해서, 시작이 좀 늦긴 했는데 어쨌든 공유공간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H)

" 공유서가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늦게 시작하였지만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책을 조건 없이 그냥 대여해주는데 놀랍게도 백 프로 회수가 된다. 재방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좋다. 주변에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크게 걱정 안한다. 우리 사회에 신뢰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다."(H)

## 3. 공유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 1) 공유 확산을 위한 홍보방안

공유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서 공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앞서 지적한 바대로 낮은 상황에서 공유문화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특히 학교에서의 공유경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각종의 공유체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SNS 등을 통한 공유경제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유 성공사례에 대한 책자 발간 및 성공사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 무엇보다 현재 공유 확산을 위해서는 같은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경험토록 하는 교육현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부터 공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공유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재조명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학교 내에서 경험하게 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공유 문화에 대한 경험이 적은 10대와 20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야 한다."(H)

" '공유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공유 활성화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도 지금 공유에 대해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공유' 간접 체험을 위하여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사업에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다."(I)

" 공유 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한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전단계로 관련 컨텐츠 제작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공유 관련 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시민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를 잘 실천하기 위한 SNS를 통한 홍보방안이 우선 필요하다."(A)

" 공유라는 개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어렵더라. 우리 사업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공유네트워크, 공유경제에 대해 우선 설명해야했다. 사회적경제박람회 때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를 했는데, 여름 내내 사업을 알린 것보다 그날 하루 동안 시민들이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홍보부스를 마련해주면 몇 개 단체씩 공동으로 나가서 홍보를 해도 좋을 것 같다."(J)

" 공유주방 같은 경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중산층 이상이나 젊은층들이 먼저 정보를 접하고 이용한다. 그분들은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주로 접하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해야 한다. 대전시 블로그기자단이 각 단체들을 하나씩 집중 취재해주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TEDx나 공유주방 같은 경우 블로그기자단이 이슈메이킹을 해주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다. 공유주방은 매출이 즉각적으로 오르는 효과도 있었다.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I)

### 2) 시설 공유 방안

FGI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공간이었으며, 공간 중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에 대한 공유 수요가 가장 빈번히 언급되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들 중 적극적으로 개방하거나 활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공공기관 유휴공간 개방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부대시설 및 장비 등도 개방하여 공유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유성 벌집의 경우를 보니 벌집에서 파생된 사업이 공유서가, 공유주방, 공유주택까지 여러 개가 나왔다. 벌집이라는 공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혼자 하기는 어렵다. 공간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우선 모여야 한다. 모이기까지 길을 뚫어야했다. 공간 안에 모여있다 보면 교류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이 쉽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청년들은 혼자 따로 경쟁해왔기 때문에 뭔가 한다는데 대해 두려움이 많다. 청년 네트워크를 하면 그게 어느 정도 극복된다. 공간에 모이면 자원도 공유하지만, 심리적으로 서로 힘을 얻는 부분이 크다.”(B)

“ 유휴공간이라도 사용하려고 하면 역시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람이 있는 없든 청소를 하고 냉난방을 해야 한다. 지원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셰어하우스의 경우, 빈집을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셰어하우스로 유인할 수 있는 지원금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시설보수 비용이나 생활비용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 장기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더 많은 친구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A)

### 3) 공유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지원

공유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대전시 및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는 것,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청년들의 일자

리 창출 차원에서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차원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공유경제의 인식을 위해 매스컴에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넷째,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적극 개방하거나 여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각급 학교별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번화가 등에 공유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섯째, 공유공간 조성을 그 수익에 비해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 사업비에 인건비를 사용 못하게 해서, 어려움이 있다. 자원봉사만 유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마을만들기와 달리 공유사업은 집중해서 진행할 사람이 필요한데, 경비를 제시해주면 유인이 될 것이다. 예전에는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생활전선에 나간 엄마들을 붙잡을 수도 없다. 정말 좋은 일이지만 펼칠 여력이 없다.”(I)

“ 공유포인트 제도가 도입된다면 인건비 대신 포인트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 단체들끼리 포인트를 사용하게 해도 좋을 것이다. 돈이 아닌 포인트를 사용하면 공유네트워크 사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단체 간 협업구조도 만들고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B)

“ 각각의 공유 관련 공동체가 사업적으로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기준이나 회계기준이 똑같다. 피플카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인건비 문제가 마루도서관에서는 발생한다. 각 사업에 대한 이해와 유연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야 할 것이다.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의 경우는 인건비나 재료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목적에 맞는다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C)

“ 대전시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공간들을 개방해주는 일이다. 공공기관의 유연성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유네트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나 기업이 필요에 의해 대전시가 운영하는 공간 지원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사업 기획자들의 인건비 책정이다. 프로그램에서 사업비 중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다. 누가 밥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유를 논할까. 사업의 기획자들이 좋은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단위 사업을 시행할 때도 최소한의 인건비를 보장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H)

“ 우선 하나의 시 단위 사업이 아닌 전략적인 차원에서 시 전체가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각 구와도 협력을 긴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시와 구의 협력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시와 구와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시가 정책을 내리는 일방향적인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에 적합한 공유경제이슈를 발굴하여 그것을 다시 시가 지원하는 지역성을 살리는 방향성을 생각해야하며, 시가 해야 할 일을 그 지역성이 확장되고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와 플랫폼을 조성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공유경제는 기존의 경제와 다른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경직성을 완만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내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J)

“ 예산을 늘려 공유네트워크 기업지원과 활성화를 해야 할 것이다. 사업비 지원외에 서비스와 물적 지원도 활성화 했으면 한다. 공유네트워크 기업을 위한 대전시 공공기관의 장소 활용, 교육지원 등이 지원되었으면 한다.”(B)

“ 운영하지 않는 공공건물을 공유센터로 운영(시설기자재 등을 공유물품으로 디자인).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공유아이디어 대회, 공유MT, 체험학습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모델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D)

“ 공유 사업이라는게 활성화가 되려면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 중심의 공유 사업 지원은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시차원의 중장기적 공유 활성화 비전이나 계획이 중요한데 현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매년 책정된 예산을 갖고만 사업을 진행하는 실정이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G)

### 4)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공유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특히,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해주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있었다. 첫째, 대전시와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것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둘째, 시민이 홀로 해결해나갈 수 없는 행정적인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공유경제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노하우를 축적해나가며, 이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을 수용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공유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인적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며, 각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도와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공유경제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으면 하는 주문도 있었다. 다섯째, 플랫폼 기능으로서 개인, 기관, 물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물건 리스트(지도) 제작 및 운영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여섯째, 대전시와 공유네트워크 단체간에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일곱째, 공유 공간 조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해주고 공유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넓혀 줬으면 하는 제안도 있었다.

“ 대전시와 사업 운영하는 단체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인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것을 마련하면 좋겠다.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내년에 같은 주제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전시가 다음 사업의 예산편성이나 항목 등을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만, 대전시는 행

정적인 편의만을 고수하다보니 그 사이의 괴리감이 존재하고 그것이 그대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준다."(G)

"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대전시에서 가장 공유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단순한 공유 이상의 기존사회문제의 문제해결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기관이다. 지금과 같이 시민이 홀로 해결해나갈 수 없는 행정적인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공유경제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노하우를 축적해나가며, 이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을 수용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중간지원조직은 필연적으로 많은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하지만 현재 사업과 동시에 그 사업으로부터의 노하우를 축적해 결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도 많은 여력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한다.(I)

"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원받는 단체 혹은 사업체 간의 공유네트워크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한다."(H)

" 사회적자본센터에서는 사회적자본센터에 지원을 받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을 연결 시켜주는 일을 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공유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네트워크를 하기위해 활동 하는 사람들이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 안에서 공유네트워크가 우선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사회적자본센터를 중심으로 공유네트워크를 하는 기관이 클 수 있도록 지원하면 활성화 될 것 같다."(F)

# 제3절 조사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 1. 조사결과의 종합

공유 활성화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하여  2018년 7월에 “공유 활성화를 위한 FGI”를 수행하였다. 아래에서는 심층면접의 내용을 종합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공유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얼핏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아카데미를 통하여 개념정도 이해에 그치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공유경제 개념의 난해함을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인터뷰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바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다양한 공유경험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자녀교육에 있어 재능 나눔, 도서 나눔, 학용품 나눔의 경험을 말하고 있거나, 도서관, 노인정, 마을회관 등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주변의 공간을 공유했던 경험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좀 더 나아가 일상생활 중에서 사용되는 지식과 경험의 공유 등과 같이 관심사에 다른 공유가 일어남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공유활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유경험 중심으로 공유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유경험이 존재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유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유 자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공유 자원이 될 만한 것에 대한 언급에서 압도적으로 장소에 대한 고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지식정보, 재능기술, 물건 등의 범주가 제시되었다. 장소에 있어서는 목적과 필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요구나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잉여 공간, 기존 공간에 새로운 용도를 추가하여 공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대전시가 공유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과 사회적 효과

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이 동시에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공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서는 나누는 기쁨이나 소비행태의 변화, 확산 등과 같은 사회적 효과가 제시되었으며, 공유의 장애요인으로는 관계에 따른 장애, 문건과 관련된 장애, 공유 효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 등이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직접 공유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물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자율성이 부족하다, 절차가 복잡하다, 공유경제 및 공유네트워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하다, 지나치게 사업의 단기적 성과를 강조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에 대하여 지원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응답결과, 공유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공유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 하였다. 홍보방안으로는 세대별 홍보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홍보장소로는 오프라인 생활 구역을 활용할 뿐만아니라 유년·청년·중년을 대상으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홍보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전시가 공유네트워크 구축의 차원에서 활용할 가용 자원으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적극적으로 개방하거나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는 공공기관 유휴공간이었으며,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기간의 각종 부속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요구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공유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대전시 및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시공무원들이 공유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제안했다.

또한 공유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특히,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중요 역할로는 대전시와 사업 운영 단체와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정기적인 세미나나 토론회 개최, 공유경제 플랫폼을 조성, 각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조성, 공유경제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등의 역할이 중요하

다고 제안하였다.

## 2. 조사결과의 시사점

이제까지 심층면접의 결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유 활성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공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일반 시민이나 비전공자들이 이 사업을 이해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이다. "공유경제" 또는 "공유네트워크"에서 "공유"가 추구하는 이념, 가치, 개념 등이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안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나 중간지원조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네트워크)"의 문화 및 개념 확산을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캠페인 도구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공유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광역시가 "공유경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교육청, 자치구, 연구기관, 국가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 중간지원 조직 등)들이 참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간지원조직이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긍정적 성과들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비전과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장기 발전방안, 다시 말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DSI

# 결 론

1절 연구결과 요약

2절 정책제언

# 6장

# 6장 결론

## 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오늘날 '공유시대의 도래'라는 흐름 속에서 '공유도시 대전'의 보다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지역 사회 내 공유자원에 대한 정의와 유형화를 통한 공유자원 분석, 기존 공유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검토와 대전의 상황에 맞는 '대전형 공유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방향 정립을 위해 공유, 공유 도시, 공유네트워크, 공유자원 개념을 정의하고, 공유 개념이 갖는 성격과 특징을 자발성, 상호신뢰성, 상호호혜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유도시 구축, 공유 자원, 공유의 효과성 등 본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개념정의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 방향을 정립했다.

둘째, 대전시 공유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했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와 광주시의 사례를 분석했다. 서울시는 가장 선도적 위치에 있는 공유도시로 공유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있었으며,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인식 조사와 행사 등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앱을 개발하여, 공유 광주의 다양한 사업과 공유 공간, 공유 물품들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국외 사례는 일본과 유럽연합, 미국의 사례를 조사했다. 일본은 다양한 행정서비스 유형별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공유 경제협회를 중심으로 우수 공유 기업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도시를 구성하는 전체로서 공유를 이해하고, 공유도시 구축을 위한 전반적 도시 디자인을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공유 사업 시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현재 대전시에 필요한 공유정책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셋째, 대전시 공유실태 분석을 위해 법적·제도적 현황을 살펴봤다. 대전시는 공유활성화 지원조례를 2015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유 관련 다양한 개념을 정의하고, 공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조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공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지속가능한 공유 사업 시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대전시 공유기반자원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작은 도서관, 공유 온라인 플랫폼, 지식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대전시의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수준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대전시는 사회적자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의 수 또한 인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작은 도서관 방문빈도는 낮은 편에 속했다. 공유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서울시나 광주시에 비해 제대로 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식 아카이브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시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물들을 이용하고,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대전시 공유자원은 물적 공유자원, 인적 공유자원, 공유 공간,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물적 공유자원에 있어 대전시는 피플카, 타슈 등과 같은 성공적인 모델이 존재했다. 다만, 생활 속 다양한 물적 공유자원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물적 공유 자원 DB화는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대전시는 인더북, 사람책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공간 공유자원의 경우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DB화가 완료된 공유 자원으로 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공간 공유자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에는 현재 두루, 꿀, 벗과 같은 다양한 지역화폐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순환 경제체계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그동안 추진된 공유네트워크 사업 참여 및 관련자를 중심으로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지원방향과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FGI를 통하여 들어 보았다. 우선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유문화의 확산에 대한 요구, 공유네트워크 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대전시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지원사업으로 지적되었다. 세대별 홍보전략 수립이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공유차원에서 공간 공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들 중 적극적으로 개방하거나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유휴공간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기간의 화장실·프린트나 팩스, 주민센터의 세미나실, 시청의 라운지, 주차장, 학교 운동장, 공연장(회의실), 관용버스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리고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공유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특히,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을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다. 대전시와 사업 운영단체와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정기적인 세미나나 토론회 개최, 공유경제 플랫폼을 조성, 각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조성, 공유경제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강조된 내용은 공유경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가 “공유경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참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2절 정책 제언

### 1. 대전시 공유 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앞선 논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유경제는 공동체 관계 및 소통을 전제로 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확산이라는 전제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유활성화 생태계란 바로 이러한 전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생태계 구축의 기반으로서 법과 제도 개선 및 정비방안,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구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이다. 공유활성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공유경제에 대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여 온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 10월과 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공유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각각 수립한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는 1기 추진계획에서 제안한 20개의 우선추진사업을 선정하여 각각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2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1기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및 한계 등을 평가하는 등 기본계획을 넘어서는 진일보한 실천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 바 있다.

대전시 또한 조례에 명시한 바에 의거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매년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 담아야 할 기본 내용은 첫째, 대전시 공유네트워크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로 관련 사업의 현황 조사 내용, 시민의 공감대와 관련한 관련 사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결과, 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한 추진 방향 및 방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 등을 담아야 한다. 둘째, 대전형 공유 활성화의 비전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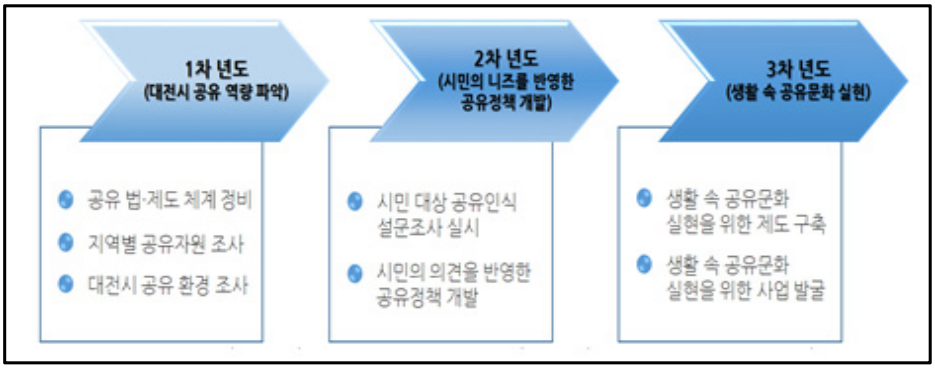
인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추진 전략을 명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공유 촉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계획에 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분야별 추진 사업 및 로드맵, 구별 추진사업 및 로드맵을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중간지원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방향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중간지원조직의 인력 및 운영 방안, 예산지원방안, 위탁운영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명확한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공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관련 단체 및 기업, 나아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공유관련 단체 및 기업에 대한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어떠한 선정 기준으로 하고 지원규모와 지원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연도별 대전시 공유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성공적인 공유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공유활성화 기본계획 이외에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공유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 가장 성공적으로 공유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서울시 또한 기본계획과 함께 매년 도시의 환경 변화와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 또한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전시의 연도별 공유 활성화 추진계획은 공유정책 추진 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다.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1차 년도에는 대전시 공유 환경 및 기반을 파악하고 이를 재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대전시는 2015년부터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센터를 중심으로 공유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 다만, 다양한 공유사업에도 현재 대전시의 공유 관련 법·제도 체계, 환경, 자원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향후 성공적인 공유계획 추진을 위해 1차 년도에 현재 대전시의 공유 역량을 파악해야 한다. 2차 년도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한 공유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공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3차 년도부터는 시 주도의 공유 사업을 넘어, 시민들 스스로가 공유 문화를 확산하는 생활 속 공유 문화 실현을 위한 제도 구축과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림 6-1] 대전시 연도별 공유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그림 6-2] 대전시 공유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도(안)

## 3. 공유대전 홈페이지 개편

대전시는 2015년부터 공유대전 홈페이지를 구추가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 관련 단체나 자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 공유대전 홈페이지는 타 시도의 공유 홈페이지와 비교했을 때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공유 사업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최신 자료의 업로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유자원에 대한 정보 또한 공유공간에 한정되어 있어 방문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공유자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또한, 공유자원의 맵핑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유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지 않다. 공간의 공유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 공유를 실현시키고, 시민들의 공유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난감, 공구 등과 같은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물품의 공유도 중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공유자원 및 공유 사업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또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전시의 공유문화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유 대전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공유대전 홈페이지는 대전시의 공유 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며, 일본의 공유경제협회 홈페이지처럼 시민들이 공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강의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유공간 이외에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공유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림 6-3] '공유대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다양한 공유 정보 제공**

## 4. 공유 활성화 및 효율적 정보 제공을 위한 '공유 대전' 앱 개발

대전시의 다양한 공유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유 문화를 체험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공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광주시는 '공유 광주'를 통해 주변에 있는 공유 자원을 쉽게 파악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공유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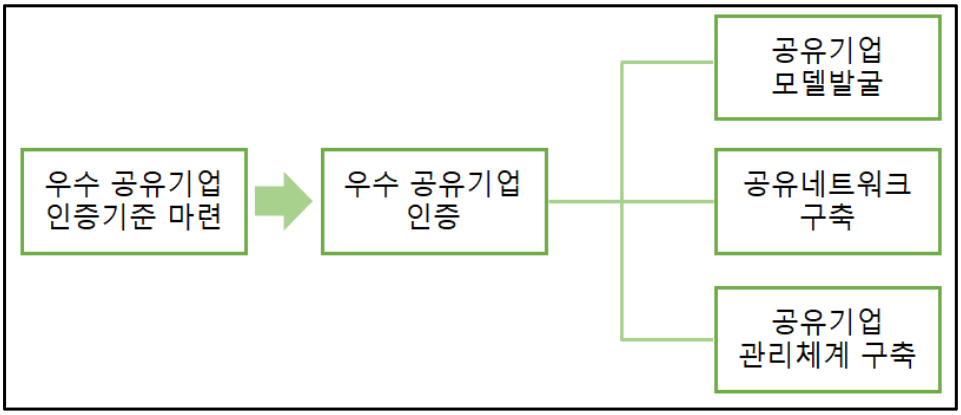
현재 대전시는 '공유 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시 공유정책이나 지역 내 공유 자원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우에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폰을 통해 편리한 정보확인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스마트 시대' 속에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공유 대전'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림 6-4] 공유활성화 및 효율적 정보제공을 위한 '공유대전' 앱 개발**

## 5. 우수 공유 기업 인증제 도입

공유기업은 지역 주민들이 공유 문화에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공유기업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공유 문화 확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지역 공유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기업의 육성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대전시 공유 정책 및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공유 문화 참여를 통한 공유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현재 대전시는 공유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전시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우수기업 육성 정책의 하나로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 공유 기업 인증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공유기업 모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인증된 공유기업을 하나의 모델화 하여 향후 공유 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증된 공유기업들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공유 기업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인증된 공유기업을 공유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우수 공유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유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다.




**[그림 6-5] 우수 공유기업 인증제를 통한 공유기업 육성 및 관리**

## 6. 공유 사업의 부정적 효과 최소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

공유정책의 수립 및 공유 사업의 발굴 속에서 '공유'는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 활동의 이면에는 공유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유 정책의 개발은 공유 활동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은폐하고, 재생산 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유가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유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한 안전망의 구축이 중요하다.

대전시도 향후 공유 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에 있어 공유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부정적' 효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공유의 '부정적'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망 및 보장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각 분야 별 공유 정책 수립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공유 보험, 자동차 공유 운전자 신원조사 등과 같은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이처럼 공유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유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이 부담 없이 공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7. 지방 기록물에 대한 공유 환경 조성을 위한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다양한 지방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는 오늘날 생산된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록물의 공유는 시민의 알권리 실현에서부터 시민들의 지역사회 관심 및 참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전시는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부지 매입이나 건축 계획(안)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존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물들이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기록원'

과 같은 기록물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설립되는 '대전기록원'은 단순 기록물을 관리·보전하는 공간 이상으로 종합적인 지식 공유 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물들을 매개로 시민들은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방 기록물의 공유 및 지식 공유,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의 다양한 기록물들을 종합 관리하는 대전형 기록물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8. 지역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화폐 육성시스템 마련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순화 경제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화폐 육성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화폐는 지역 사회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유통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지역화폐의 육성에 있어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화폐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지역화폐에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화폐 아카데미, 지역화폐 오픈 컨퍼런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특징에 맞는 맞춤형 육성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대전시에는 한밭레츠의 '두루'와 같은 성공적인 지역화폐 모델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한밭레츠의 성공사례일 뿐 다른 지역사회에서의 성공사례는 될 수 없다. 모든 지역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 그러므로 지역화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성공 모델을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상황과 환경부터 살펴보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계적 접근에 있어, 우선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화폐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마을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화폐 육성을 위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를 점검하고, 지역화폐 유통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 겪고 있는지 수시로 파악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 국내·외 참고문헌


고준호(2015). 『공유도시 상징사업 나눔카 효과평가와 서비스의 운영방향』.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고준호, 유경상(2013). 『공유교통의 시대, 무엇을 나눠쓸 것인가?』. 서울연구원.

곽노완(2015). 『공유의 시대, 열리고 겹치는 공유도시의 비전』. 마르크스주의 연구 12(3). pp 100~122.

구본권(2014).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어크로스.

김묵한(2015). "소유의 공유, 공유의 소유 - 공유도시의 명암에 대한 시론". 도시인문학연구 7권 2호. pp 51~69.

김은숙, 차미숙, 김상조, 박미선(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2016). 『2015년 사업백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2017). 『2016년 사업백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2018).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17년 사업보고서』.

로버트 D. 퍼트넘(Putnam, Robert David),『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장운 외 역, 박영사, 1993.

박노동(2017). 『마을기업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반정화(2017).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서울연구원.

반정화, 박윤정(2015).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숙박공유 중심』.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2012).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추진계획』.

서울특별시(2013). 『공유도시 서울기반조성(2013)』.

서울특별시(2016).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2017). 『2017년도 공유서울 추진계획』.

손은하(2012). "공유 공간과 커뮤니티". 동북아문화연구 32. pp 61~79.

송미경(2015). "공유도시 서울". 『세계와 도시』. 서울연구원

여진원, 장우권(2013. "도시아카이브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pp 315~335.

이민석(2013). "해외 집합주택의 공유공간 계획특성 연구 : 유럽, 일본, 중미지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3). pp 174~182.

이성엽(2016).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 차량 및 숙박 공유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44. pp 19~41.
장수정, 이혜수, 황연숙(2016).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공유공간 사례분석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 81~84.
장윤배, 강성익(2016).『공유도시이론과 실현방안』. 경기연구원.
장윤배, 이주아, 강성익(2017). “공유도시 지표설정을 통한 공유도시 수준의 지역적 분포특성 분석-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국토계획』52(3).
정경석(2016).『공유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조성찬(2016).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전략의 의미와 한계 : 한국 토지정의 연구 흐름의 관점에서”.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3~11.
최길수(2015).『대전시 공유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2017).“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변경중심) 해설 및 방향”. 마을공동체 이슈프리즘 13. pp 1~15
행정자치부(2017).『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행정자치부.
PWC(2015).『The sharing economy』.

### ○ 법률 및 조례

대전광역시. 2018.04.20. 일부개정.『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2017.09.21. 일부개정.『서울특별시 공유 촉진조례』.

### ○ 뉴스 및 신문기사

김장훈. 2018.03.06. “[무역관 르포] 일본, 공유도시 추진으로 도시문제 해결도모”. Kotra
노해섭. 2105.02.23. “광주시, ‘공유문화도시’를 도시브랜드로 육성”. 아시아경제
임인택. 2012.9.21. “서울시도 ‘공유도시’ 선언”. 한겨레신문

### ○ 인터넷 홈페이지

공유광주홈페이지. “http://www.sharegj.kr”.
공유대전홈페이지 “http://daejeonshare.kr”.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산전 홈페이지. “http://stdweb2.korean.go.kr/”.
대전 커뮤니티 매핑 홈페이지. “http://daejeonmapping.org/”.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https://socialcapital.kr”.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
사람인 홈페이지. “http://www.saramin.co.kr”
서울시 공유허브 홈페이지. “http://sharehub.kr”.
유럽연합 공유도시 홈페이지. “http://www.sharingcities.eu/”.
타슈 홈페이지. “http://www.tashu.or.kr”
피플카 홈페이지. “https://www.peoplecar.c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
한밭레츠 홈페이지. “http://www.tjlets.or.kr/”